

‘108 프로젝트’ 오늘 공개

모든 학내 구성원 참여하는 대토론회 ... 앞으로 발전지표로 사용될 터

‘108프로젝트’ 선포식이 오늘(13일) 오후 5시에 본관 중앙당에서 열린다. ‘108프로젝트’는 오영교 신입총장이 선출 전부터 내세웠던 공약이며, 학교운영에 효율·성과 중심의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12월부터 고심해 만든 108가지 발전방안이다.

그동안 주요 골자만 드러냈을 뿐 상세한 내용은 비밀에 부쳐졌던 ‘108프로젝트’를 공개한 후, 총장과 모든 참석자들 사이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교수, 직원, 학생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내일(14일) 오후 5시 30분 경 주캠퍼스 백상관 컨벤션 홀에서도 전 교직원과 학생대표들을 대상으로 선포식이 열릴 예정이다.

열릴 예정이다.

이번 선포식 개최는 오 총장이 ‘108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앞서 학내 전 구성원에게 공개해 상충되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고,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오 총장은 “발전방안을 짜서 캐비닛에 넣어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전 구성원과 다 같이 공유하고 참여해야 한다”고 말해 이번 선포식에 대한 많은 기대를 나타냈다.

‘108프로젝트’는 발전방향에 대해서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우리학교의 현 위상과 한계점에 대해서도 꼬집어 눈길을 끌고 있다.

올해부터 2010년까지 4년간 국내 최고 수준 분야 5개, 세계 최고수준 분야 3개를 달성하도록 목표를 정했으며, 5대 혁신과제는 △신 경영 시스템 창출 △교육·연구 시스템 혁신 △최적의 교육·연구 환경 구축 △재정확충 및 건전화 △의학교육 및 병원경영 혁신이다. 더불어 경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공유하고 지향할 목표로 활용하며, 각 기관의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의 기준으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에 앞서 오 총장은 지난 7일 교육부 출입기자·교계 언론사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 총장은 “특정한 혁신모델은 없고 각 부분별로 우수한

학교를 벤치마킹 해 하나의 새로운 경영 모델을 창출하겠다”며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 만족도를 수시로 체크할 것”이라고 말해 새로운 경영 방법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종단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접근방식과 관각의 차이로 오해가 있어 종단과의 관계가 어려웠지만 이 부분은 대화와 논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우리 학교 소유 토지 중 사용하지 않는 부분을 통해 수입을 올리는 것이 재단 전입금이 라고 생각한다”며 재단 전입금 확충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김나리 기자
vik126@dongguk.edu

신입생 대상 학내어학강좌 개강 전 학생들과 잡음 많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개설한 토익 강좌인 ‘랭커스 프로그램’이 12일 개강 이전부터 환불 관련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국제교육원(원장=김일중·국제통상학)은 재학생들의 영어 교육을 위해 TTC(토익 트레이닝 센터)라는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다. 이곳에서는 ‘랭커스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정규수업 외에 국제교육원에서 개설하는 대부분의 영어강좌를 맡고 있다. 이중 ‘랭커스 프로그램’은 2005학년도부터 시작으로 올해 3번째 시행하고 있다.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어학설명회 개최, 이메일 발송을 통해 홍보된다. 입학 전 1월과 2월 두 번에 걸쳐 신청 접수가 이뤄지고 학생들은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총 9개월 동안 687,000원을 부담하고 강의를 듣게 된다.

문제는 예년까지는 개강 이후부터 제공되던 인터넷 강의를 올내는 ‘사전강의’로서 1. 2월부터 제공한 데에서 발생했다. 등록할 경우 바로 인터넷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환불규정이 바뀐 것이다. 올에는 등록 후 1주일 이내까지는 전액 환불 가능하지만 그 이후 개강 이전까지는 인터넷강의로 20만원과 교재비를 공제한 액수를 받게 되었다.

이 사항은 학생들이 받은 영수증에 “등록 후 환불 시 공적거래위원회 약관 제12조 할인금액이 아닌 정당한 수강료(랭커스 정규 과정+프리패스과정+무료혜택과정)에 의거하여 환불한다”는 사항과 함께 명시되었다.

이를 미처 염두에 두지 않았던 많은 학생들은 환불을 요청할 때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터넷강의료가 공제된 채로 환불을 신청한 신입생 이모 군은 “제공된 인터넷 강의를 한 번도 듣지 않았는데 이 점은 전액환불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비자보호원 취재 결과 “업체에서 따로 정해진 환불 규정이 있고, 등록과정에서 영수증 등에 이를 명시했기 때문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밝혀졌다. 한편 ‘랭커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김미지 씨는 “환불 후에도 한동안 인터넷수업을 들을 수 있게 조치할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한 한 환불해 줄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지적하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랭커스 프로그램’ 담당자에 따르면 “학생 개인개인의 출석, 성적 등의 관리를 크게 중요시한다”며 “토익 공부의 필요성이 크게 와 닿지 않는 신입생 때에도 잘 타이러 즐겁게 공부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마다 약 500여 명의 신입생이 신청해 작년의 경우 약 70%가 1년간 좋은 출석률과 성적 향상을 보여 수료증을 받았다.

이런 ‘관리’가 달갑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문과대 신입생 이모 양은 “환불을 요청했을 때 미묘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말했다”며 “학과성격을 따지며 ‘논는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고 하는 말에는 기분이 나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자율적인 생활을 원하는 대학생들에게 지나친 지도라고 지적되는 점은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문과대 현성은(국문3) 회장은 환불조치를 원하는 2~30여 명의 신입생들과 함께 담당자를 방문해 학생들의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제교육원 송보경 직원은 “불만을 갖는 학생들이 있는 한편 성적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는 학생도 있다”며 “학생들이 판단에 있어 언제나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현 기자
nitake@dongguk.edu



“내 앞의 부처에게” ...

지난 5일부터 5일간 새내기들의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불교대학 학생들 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불교대학 2007 새내기 교양학교가 불교대 학생회 주최로 열렸다. 사진은 학생들이 나란히 서서 서로 미주보신공유 기자 shinmk2@dongguk.edu

오늘부터 3일간 학점포기

오늘(13일)부터 3일간 학점포기를 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학점포기제는 이번학기 등록과 수강신청을 한 재학생에 한해서 가능하다.

학점포기가 가능한 과목은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해 폐쇄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과목의 경우와, 개설학과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학점포기 신청은 과목수나 학점수에 제한 없이 가능하다.

폐쇄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과목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바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현재 소속학과에 존재하지 않는 교과목의 경우는 해당대학 행정지원실 방문신청으로 이뤄진다.

인사이드

일산 병원에 이명목교수

본교 보직인사가 3월 1일 다음과 같이 단행됐다.

△의과대학부속 일산병원장=이명목(의학) △한의과대학부속 일산한방병원장=이원철(한의학) △의과대학부속 경주병원장 겸 포항병원장=정필현(의학) △한의과대학부속 경주한방병원장=윤종화(한의학)

Dongguk International Summer School 6월 개설

교무처(처장=이상일·사회환경시스템 공학)와 국제교육원(원장=김일중·국제통상학)이 공동으로 추진해 신설한 Dongguk International Summer School이 오는 6월 개설된다. 이로써 앞으로 우리 학교에서도 아이비리그 대학 및 중국 북경대학 유명 교수진들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우리학교 학생에게도 세계적인 교수진을 초빙해 다문화 시대에 요구되는 세계시민적 감각과 지식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개설 분야는 크게 Global economy와 East Asian Culture&Art 두 분야로 개설되며 강의는 모두 영어로 진행된다. Global economy의 세부내용으로는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경영·무역·경제와

관련한 5강좌, East Asian Culture&Art의 세부내용은 미국정책·한-중교류·문화차이 등에 관련한 5강좌로 총 10강좌가 개설될 예정이다.

국내·외 교류대학생을 포함한 우리학교 재학생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3과목 총 9학점까지 신청가능하다. 우리학교 학생은 계절학기 이수과목으로 9학점까지 인정되며, 교류대학생은 해당 대학의 학칙에 따른다. 외국인 교류학생은 학교 측에서 제공한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

수강료는 3학점당 30만원이 기준이며 추후 계절학기에 준하는 수강료로 결정될 수도 있다. 등록 및 수강신청은 5월 초에 진행되며, 강의는 6월 25일 오리엔테이션 및 입학식을 시작으로 7월 20일 수료식을 가질 예정이다.

박영석 동문 베링해협 도보횡단 중도 포기

베링해협 도보횡단에 도전했던 세계적인 산악가이자 탐험가인 박영석(체교91졸)동문이 이끈 원정대가 지난 9일 오후(한국시간) 목격지인 미국 알래스카주 웨일스까지 불과 20여km를 앞둔 상황에서 도전을 중단했다.

북위 64도와 67도 사이에 걸쳐 있는 베링 해협은 영하 20~40도의 혹한으로 유명하지만 최근 온난화 현상 때문에 유빙이 적어져 도보로 탐험하기에는 최악의 조건이다.

저체온증 방지 특수복인 드라이슈트를 착용하고 얼음바다를 횡단하려했던 원정팀은 당초 날씨 등을 고려해 지난달 26일을 횡단시작일로 잡았으나 러시아에서

출국허가가 늦어지는 바람에 지난 5일에야 러시아 추코트 자치구 유엘렌 해안가에서 원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

박 동문은 ‘유빙에 고립돼 구조를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고립되어 구조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상황을 판단해 철수하기로 한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예보되었던 것보다 북풍이 거세게 불어 대원들의 안전문제가 우려되어서, 횡단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석 동문과 대원들은 오는 14일 미국 알래스카주 놈에서 출발, 앵커리지를 거쳐 오는 16일 입국할 예정이다.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저 학생 참 괜찮다

응시자격 1학년 재학생
원시접수 3월 22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전척일시 3월 22일 목요일 오후 6시
원시개부 SC제일은행 옆 본관 1층 동대신문사 사무실
<http://www.dgupress.com>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문의 www.dgupress.com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TEL: (02) 2260-3491~2 E-mail: dgupress@dongguk.edu
혜택 소정의 활동비, 장학금 지원
 교내 국제교육원 주관 어학특강 방중 무료 수강, 언론 교육기관 무료 수강
 ※ 보호자 월 보훈료 5만원이하인 학생의 경우 등록금 전액 감면

커머스스토리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대한 고찰

요즘 대학생들은 대학을 다니기 위해 ‘보릿고개’가 아닌 ‘등록금 고개’를 넘어야 한다. 대학 등록금이 어느덧 1,000만원 시대에 돌입했다. 대학교육이 필수교육으로 자리 잡은 요즘 대학생들은 대학을 다니기 위해 1년에 1,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교육비로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인상된 교육비만큼 혹은 그 이상, 강의 수준과 강의 환경은 좋아지고 있는 걸까? 이번 호에서 우리 신문은 등록금 1,000만원시대에 대학교육과 등록금 인상은 어떠한 지 살펴보기로 한다.

관련지면 4면 커머스스토리면
 -대학 등록금 인상 캐슬러 보기
 5면 기획면
 -대리가 등록금 협상, 현재의 한계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 대안은 무엇인가

생활 직영 학생식당 현황조사

메뉴·맛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치 높아져

우리학교 메뉴 ... 기호 충족시키는 식단 개선에 힘써야

학생식당은 주머니 가벼운 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고마움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다. 더군다나 우리학교처럼 밖으로 나가는 일이 불편한 경우엔 그 의존도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학생식당. 우리학교 학생식당의 현황과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한번 알아보자.

교내 식당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상록원 1층 식당은 2,500원 가격의 양식과 덮밥을, 2층 식당은 2,000원 가격의 학생메뉴를 제공한다. 현재 우리학교 생활협동조합(이사장=송일호·경제학, 이하 생활)처럼 학생식당을 직영하는 세종대의 우정당 식당은 양식, 덮밥, 일반 백반, 떡볶이 메뉴가 있다. 양식과 떡볶이 메뉴는 중식·석식 메뉴가 다르므로 하루에 총 6가지 메뉴가 나오는 셈이다. 역시 생활이 학생식당을 직영하는 송실대 학생식당은 덮밥, 양식, 떡볶이

메뉴의 중식메뉴와, 석식메뉴 1가지가 제공되고 있다.

이 두 학교 모두 덮밥과 양식 메뉴에 있어서 우리와 구성의 차이가 없지만 우리학교에선 교직원식당에서만 판매하는 떡볶이 메뉴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세종대 최희경 경영사는 “학생들이 즉석조리되는 떡볶이 메뉴를 좋아해 처음 메뉴를 시작한 지난학기, 운영에 애를 많이 먹었을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고 했다.

생활에서 직영하는 학생식당을 직영하는 학교들과 비교한다면 메뉴의 종류는 평균 수준이다. 하지만 학생메뉴의 종류는 3가지나 되지만 저렴한 가격을 제외하곤 별다른 특색이 없어 메뉴의 새로움이나 다양성을 원하는 학생들의 기호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타 학교에서 시행 중인 떡볶이 메뉴 도입에 대해 김용문 생활 사업팀장은 “떡볶이 메뉴의 경우 다른 메뉴에 비해 조리 시간이 오래 걸려 기다리는 인원이

많아질 것”이라며 “식당공간이 넓을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처럼 고정된 메뉴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학교는 방중에 새로운 메뉴개발 및 평가 시사회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현재 판매중인 대표적 메뉴의 예로는 상록원의 튀김우동 등을 들 수 있다.

생활에서 직영하는 학생식당 메뉴의 가격은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순수재료비가 55~60%, 인건비가 20~35%의 비율을 차지하고 식기구입,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등 그 밖의 기타 운영비를 감안해 계산된 것이다. 실제 생활 전체 수익에 있어 학생식당은 거의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다. 상록원의 경우 지출과 비슷한 정도의 수익을 얻고 동국관 식당의 경우 연간 8,00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메뉴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선 부분적으로 임대매장

을 개설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 가격은 일반 학생식당 메뉴보다 비싸지만 기존의 메뉴들과는 차별화된 메뉴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생활이 외부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연세대의 ‘세’스토랑과 이화여대의 ‘돈까츠’ 메뉴는 각각 4,000원과 3,000원 내외의 비교적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이에 연세대 추다운(법학2) 양은 “비싼 가격만큼 맛이 있어 학생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다”고 했다.

또한, 99년 문을 연 이래 한번도 변화가 없었던 상록원의 리모델링도 5억여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만 지사 해결된다면 공간 확장이나 조리실의 동선조정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식단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담은 기자 ssundam@dongguk.edu



▲연세대 ‘세’스토랑의 철판볶음스테이크(4000원)



▲지난해 8월 리모델링한 세종대 우정당 식당의 전경



▲우리학교와 같은 구성의 세종대 돈가스(2600원)

오히려 독

이미 2학년이 된 학생은 다시 1학년의 시절로 되돌아 갈 수 없다. 이전의 교육과정과는 달리 대학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것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학점이다. 우리학교는 재수강 제도와 학점포기제도를 통해 학점을 만회하거나 이미 취득한 학점을 무효화 할 수 있다.

재수강제도와 학점포기제도는 학생들의 학점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러한 제도는 학생들이 학점을 그때그때 유연하게 쌓아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몇몇 필수이수 강의 경우, 재수강 신청이 많아 정작 수강해야 할 1, 2학년 학생들은 수강 기회를 종종 놓치게 된다. 또한 재수강을 할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해당 학기 수업에 소홀하게 될 우려도 생긴다. 이처럼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제도가 도리어 학생들이 학문적으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우리학교에서는 현재 3, 4학년 학생들의 30%가 평점 4.0을 웃돌고 있어 학점의 변별력 저하가 우려된다. 성적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재수강, 절대평가, 학점포기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중 작년 처음 도입한 학점포기제의 경우 한해 동안 학생들이 포기한 과목은 4,224과목에 달했다. 이는 우리학교의 평가 기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재수강과 학점포기제에 관해서는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분분하고, 각 학교의 교육철학에 따라 제도의 성격도 각각씩이다. 연세대는 재수강 기회를 06학년부터는 재학중 3번, 07학번은 2번으로 제한하고 있다. 재수강 제도 제한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은 높지만 학교측은 비교적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제한된 재수강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학교 측에서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형성 등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느슨한 재수강제도와 학점포기가 개인적 측면에선 학생 자신의 성적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지만 자신이 속한 학교전체의 학점평가기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소탐대실’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 드라마에서 여주인공이 ‘지나간 자장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학생들에게도 지나간 학점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승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한전부터

관리참수

○...여기저기 대차보 누가 관리 하나요. 계산란 곳곳에 대차보는 보여도 도장 찍힌 대차보 찾을 수가 없네요. 작년에도 정한 ‘계시물 관리 규정’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니?

역주행

○...어제밤엔 4학년 미워졌어. 어제밤엔 4학년 싫어졌어. 4.3.2.1. 거꾸로 간 수강신청 학년순서 덕분에 전공필수 못들어 내 선배들아 재수강 자리 잡고 좋아할 때 전공필수 신청 못해 괴로워하던 내 모습을 왜 못 봤니.

부소리

○...바뀌 바뀌 바뀌 모든걸 다바뀌 바뀌 바뀌 강의는 하루만 바뀌 바뀌 3시간 수업은 1시간 45분 다수결로 모든걸 다바뀌 다수결의 힘으로 시간표를 ‘확’ 바뀌버린 기초스페인어 수강생들에게 이 노래를 바칩니다.

무용지물

○...화장실에 있는 휴지 파는 자판기 공짜 휴지 걸려 이제는 거의 안 써도 아직도 제자리 차리리 여성용품 전문자판기를. 아직도 아무도 안쓰는 휴지 자판기가 서 있네 자판기에도 특성화가 필요해

게임멀티미디어 세미나 개최

게임멀티미디어공학과의 오는 16일 학과 개설을 기념해 CT특성화를 위한 게임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게임 인공지능의 개발과 응용’을 주제로 오후 2시부터 문화관 덕담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발표와 질의 응답형식으로 진행되며 관심있는 학생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조경은(게임멀티미디어공학) 교수, KOCCA 설치환 분부장, (주)소프트닉스 개발팀 기획자 강기완, (주)CCR RF온라인 김현우 실장이 참여한다.

RIS 사업성정 이의수 교수를 만나

“지역발전과 더불어 학교위상 빛낼것”



우리학교가 산업자원부의 지역 혁신 특성화사업인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이하 RIS) 사업에 선정되었다. 올해 선정된 8개 사업 중, 서울시 대표로 선정된 우리 학교는 중구지역에 밀집한 인쇄산

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게 되었다. 이번 사업의 총괄 책임자인 이의수(생명화학공학) 교수를 만나보았다.

- 사업팀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 서울지역 인쇄산업체의 40%가 몰려있는 중구지역의 기업체들은 이날로그적인 제분방법과 소규모 기업체들의 난립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번 사업으로 인쇄정보 자료 센터를 신설해 인쇄 인력을 양성하고 공정의 단순화, 온라인 환경구축, 환경 개선을 병행하여 중구의 인쇄산업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도록 할

것이다.
- 우리학교가 이번 RIS 사업에 인쇄 산업을 선택한 이유는.
= 중구는 인쇄산업이 특성화된 곳으로 조선 태종 때부터 주자소라는 활자 인쇄소가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 학교는 직지심체요결과 같은 활자 인쇄물과 깊은 연관을 가진 불교 대학이기에 이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업을 통해 우리 학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일단은 연구비를 수주했다는 점이 커다란 이익이다. 산업자원부와 서울시, 산업체들로부터 3년간 총 43억을 수주받을 것이며 이를 통한 중구의 인쇄산업 발전과 인쇄 산업에 관련한 첨단 재료연구기관을 통해 학교의 위상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웅우 기자 shinmk2@dongguk.edu



“책만큼 무거운 마음” ... 새학기를 맞아 수업에 필요한 책을 사기 위한 학생들로 지난 주 다화관 서점은 크게 붐볐다. 새로운 시책에 대한 실험보다는 비싼 책값으로 인해 학생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김나리 기자 vikiz26@dongguk.edu

“108프로젝트” 선포식

- 행사목적 :** 대학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108프로젝트”의 선포와 각 구성원(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 일시·장소 :**
가. 일시 : 2007년 3월 13일(화) 17시
나. 장소 : 본관 중강당
- 참석대상 :**
가. 전체 교원
나. 전체 직원
다. 학생대표 (총학생회 등 학생회 대표 및 집행부, 그 외 참석을 희망하는 학생)

봄 학기 개강 대법회 실시

정각원에서 모든 동국인들을 위한 봄 학기 개강 대법회를 개최하오니 두루 참석하시어 부처님의 가피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1) 법회 일시 : 2007년 3월 22일(목) 오후 4시 ~
(2) 초빙 법사 : 영담 큰스님
(3) 법회 장소 : 정각원 법당

3월 독서토론 프로그램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교양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독서의식을 고취하고 대학 내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3월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독서토론 프로그램이란 :** 학생(대학원생 포함)들과 독서토론을 원하는 독서를 신청받아 교수(강사 포함)가 진행자가 되어 학생들과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프로그램임.
- 일 정**
일 시 : 3월 30일(금) 오후 3시 ~ 5시
장 소 : 중앙도서관 사회과학실(지하1층) 특수자료실
진 행 : 화학과 여인영 교수
선정도서 : 역사를 바꾼 17가지 화학이야기 1/ 페니 르 쿠테, 제이 버 레스 공저, 사이언스북스 2007
정 원 : 10명
- 신청방법**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광장) 내 (이용자 교육) 코너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영화 관련 동아리의 단체 신청과 중복신청도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선정도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독서토론 신청 후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차후 중앙도서관 독서증진 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다.
* 토론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1만원)이 지급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34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 앙 도 서 관

3월 영화감상토론 프로그램 안내

중앙도서관에서는 다매체시대에 영화를 감상하고 그 작품과 관련 텍스트를 비교 토론함으로써 영상문학의 이해를 높여 학생들의 독서의식을 고취하고 대학 내 성숙한 토론문화를 정착 시키는 계기를 마련 하고자 3월 영화감상토론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영화감상토론 프로그램이란 :** 한 가지 테마를 정해 관련 도서들을 읽은 후 영화나 DVD를 개별관람하고 교수(강사 포함)가 진행자가 되어 학생들과 토론을 자유롭게 하는 프로그램임.
- 일 정**
일 시 : 3월 29일(목) 오후 4시 30분 ~ 6시 30분
장 소 : 중앙도서관 사회과학실(지하1층) 특수자료실
진 행 : 독어독문학과 임효일 교수
선정영화 : 향수 / 톰 뤼크베어 감독 2007년작
관련도서 : 향수 / 파트리크 쥐스킨트 지음, 강명순 옮김, 열린책들
정 원 : 10명
- 신청방법**
중앙도서관 홈페이지(http://lib.dongguk.edu/) (도서관광장) 내 (이용자 교육) 코너를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영화 관련 동아리의 단체신청과 중복신청도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신청자는 관련 도서를 필히 읽어야 하며, 영화감상 후 입장권을 토론 당일 제출해야 합니다.
영화감상토론 신청 후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차후 중앙도서관 독서증진프로그램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다.
* 토론에 성실히 참여한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1만원)이 지급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02-2260-34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 앙 도 서 관

5대혁신 분야별 108 개혁과제 제시

지난 달 26일 취임한 오영교 총장이 제시한 앞으로 4년간 학교 발전방안인 '108 프로젝트'의 선포식이 오늘 열린다. 이에 우리 신문에서는 '108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 주요 골격,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편집자

중앙집권적 시스템에서 단과대 학장으로 권한 이임 단과대학 경영평가제 시행으로 자율·책임 경영 실현

'내부 고객이 만족하고 외부 고객이 감동하는 World Wide Dongguk'을 비전으로 한 '108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우리학교 경영체제의 주요 지점이다. 분권화를 통해 강점 분야를 도출해내서 특성화하고, 단과대의 자율적 노력의 기반을 마련하며 좋은 대학의 글로벌수준과 경쟁할 수 있는 국제화를 지향하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의 5대 혁신분야별 과제는 △신 경영시스템 창출 △교육·연구시스템 혁신 △최적의 교육·연구 환경구축 △재정확충 및 건전화 △의학교육 및 병원경영 혁신이다. 경영부총장 제도를 도입하면서 서울캠퍼스(경영부총장, 학사부총장), 경주캠퍼스(경주부총장), 의료원(의료부총장)의 4인 부총장으로 확대된다. 경영부총장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경영기능이 강화된다. 기존의 분부 권한은 단과대 중심으로 대폭 옮겨진다. 단과대 학장이 설정한 경영목표에 따라 대학의 발전계획,

특성화, 학사관리, 인사평가, 재정 운영 등이 자체적으로 결정된다. 그동안은 분부에 예산 편성 권한이 있었으나 이제는 단과대학별 자율예산 운영이 가능해진다. 분권화는 정교한 행정서비스 요구에 따른 것으로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 행정속도의 효율성을 위해서 프리젠테이션 방식의 정책조정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 별도의 협의절차 없이 의사결정권자의 전자결재를 받아 곧바로 시행된다. 이로 인해 'One Stop 완결형 의사결정시스템'의 구현이 가능해진다. 통합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단과대학 경영평가제가 실시되어 매년 말 총장과 단과대학장 간에 경영계약이 체결된다. 연간 경영성과를 반영하여 차별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자율·책임 경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특성화를 중심으로 한 학제개편에 따라 △BT특성화=바이오대학+일반대학원(BT학부)+생명과학연구원의

유기적 시스템 구축 △CT특성화=영상(문화)미디어대학+영상대학원+영상문화콘텐츠연구원 △IT/NT특성화=정보나노대학+일반대학원(IT/NT학부)+정보나노기술원의 유기적 체계가 구축된다. 현재 나뉘어 있는 연구소, 학부, 대학원의 권한을 단과대학장이 총괄하게 되는 것이다. 또 교육의 국제화를 위해서 올해 신입교원의 영어강의가 의무화되고 영어강의의 비율이 2010년까지 50% 수준으로 제고된다. 'In-Bound' 국제화와 'Out-Bound' 국제화에 따라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미래 핵심인재의 전략적 유치와 육성을 위한 방안에는 3학년 진급예정자 중 매년 108명을 선발하여 동문 졸업생과 1:1 멘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국 미래 리더스클럽'이 있다. 중장기 교원 확보 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교수 1인당 학생 수 25명 달성을 목표로 향후 4년간 총 100명 이상, 매년 평균 25명 이상 순수중원

을 예상하고 있다. 단과대학 내에 초빙심사기준을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단과대학장에게 실질적인 교원 인사권을 부여한다. 한편 특성화분야의 연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Asia), 생명(Bio), 문화(culture) 중심의 연구기반을 강화하는 교직원특성화(ABC+α)정책을 추진한다. 국제수준의 연구소 육성에 중점을 두고 연구소의 사업계획에 따라 기부투자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발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기부금은 대학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 중 하나로 기금 마련을 위해 Fund Raising 조직 강화를 꾀할 것이다. 기존에 기금 모금을 전담했던 대외협력처가 사업개발본부로 확대 재편되고 앞으로 단과대 차원에서 기부금을 모금한다. 기금조성을 위한 기부자 네이밍 부여, Profit Sharing, Sales-based Donation 등 재원 조달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산학협력과 민간투자사업 유치 역시 재정 확충의 또 다른 기반이다. 지역별 특화된 산학협동모델 구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학교기업 창업을 활성화, BT/BO 등 민간투자사업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일산병원, 경주병원, 포항병원, 한양병원은 경영이나 시설·장비투자 등의 이유로 저조한 실적을 내고 있다. 의학전문대학원 일산캠퍼스 신설을 추진해서 의학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고 한의대와 의대간의 강의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등 의·한의학 교육 강화에 애를 것이다.

단과대 중심의 재원 인사 개편 후 구체적인 경영목표 논의 시행될 듯

현재 오영교 총장이 추진하고 있는 108 프로젝트의 계획은 △2007년 현재=선택과 집중 △ 2009년 도약기=학교 이미지 제고 △2011년 확산기=전 대학 발전의지 확산을 통해 5개 분야 국내최고, 3개 분야 세계최고 수준달성이다. 이에 따른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현 경영전략을 시행한 후 꾸준한 심사와 보안을 통해 나은 상태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시행되는 경영개편을 중심으로 108프로젝트의 발전전략을 살펴보았다.

연구위원장 김홍일(건축공학) 교수는 "이미 선정된 '우선협상 건설업체'와 계약내용을 협의하고, 3~4개월 후 업체를 최종 선정한다"며 "8월 중 착공해 30개월 후인 2009년 말에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모자원 부지 구입을 완료해 2009년부터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다. 모자원 구입은 이전부터 해왔으나 그중 1/3의 매입이 계속 지연돼 이를 해결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지하공간 개발이 이뤄지는데 동국관에서 해화문 진입구간, 팔정도, 만해광장 등의 구간까지 4단계로 나누어 2012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경영조직
올해는 경영조직개편을 통해 총장·학장 간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각 단과대 별 교원업적평가·연봉제·기관평가를 재설계할 예정이다. 기존의 조직체계가 가지고 있던 대학발전계획, 학사관리 등의 권한을 단과대학으로 이전해, 문제가 일어난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는 '현장완결형' 체제를 구성한다. 이전 연구처 연구진흥팀의 기능 또한 올해부터 단과대학 중심의 연구진흥 시스템을 바뀔 예정이다. 시스템 변화에 따라 다음 학기부터 각 단과대학 특성에 맞는 연구기반 강화와 대학원생 연구지원 사업이 진행된다.

▲재원확보
연구 환경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우선 건물 증축·신축 등에 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산학협력공공관의 경우 약 710억원의 사업비를 10년간 상환하고 일부는 민간업체에 위탁해 건축비용은 연간 44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예산은 학교차원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외 건물의 증축, 리모델링, 특히 지하 공간 개발이 세 시기에 이뤄지려면 지하 공사에 투입될 400억 가량의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신설 사업개발본부에서는 총장 재임기간 동안 기금조성 목표를 1천억으로 잡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대해 관련 직원은 "이전에 대외협력처 등의 일부가 참여했던 기부금에서 구성된 전제로 확정해 재원 확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분야
이번 학기동안 설계한 교육목표를 바탕으로 학문의 특성에 따라 전공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기업체의 수요를 반영해 실용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할 예정이다. 다음 학기에는 통합된 학부, 대학원, 연구소의 유기적인 관계를 구성하고 재학생 수, 취업률 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학과, 학부별 경쟁을 유도한다. 또한 올해 임용되는 신입교원부터 의무화를 통해 영어강의를 확대한다. 내년에는 해외 거점대학과의 공동, 복수 학위제를 가능하도록 거점대학과 게스트하우스를 올해 안에 확보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올해 안에 UI를 개발해 다음 해 선포·홍보할 예정이다. 학교기구 구성은 4월 초쯤 새로운 경영체제를 통해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 단과대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다. 올해 안에 각 단과대별로 경영시스템을 창조,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학제와 연구에 관한 논의가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각각의 경영목표 설정을 위한 팀 구성과 운영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신축건물이나 체제 개편에 따른 인력 확충과 재원 조달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송이 기자 thispaper@dongguk.edu

▲건축분야
건물증축과 리모델링이 올해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산학협력공공관 신축이 계획되어 있다. 108 프로젝트



'108 프로젝트' 추진과정 한계점 파악 후 도약을 위한 방안 제시

드디어 오영교 총장의 '108 프로젝트'가 공개됐다. 학내 구성원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학교 발전을 위한 108가지 발전방안인 동시에 선포식을 기준으로 108일 동안 연구한 프로젝트란 뜻도 내포하고 있다. '108프로젝트'는 우리학교의 현실적 한계를 깨닫고 새로운 경영시스템을 도입해 4년 안에 세계적인 수준까지 끌어 올리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현재 우리학교는 열악한 수익구조와 재정상태, 취약한 연구경쟁력, 협소한 캠퍼스 및 미비한 교육여건, 부속병원 등의 계속되는 적자, 다수의 소규모 학과, 저조한 취업률 등 각 분야들이 국내 최고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 국내 최고수준의 사립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 연구, 경영 등 학교 운영 전 부문에 걸친 혁신 과제가 필요함을 느끼고 올해를 전환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이러한 한계점을 바탕으로 5대 혁신과제가 정해졌고,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각 혁신 과제에 따른 세부 항목이 만들어졌다. '108프로젝트'는 오 총장이 취임 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오 총장을 중심으로 실무를 맡은 직무준비단, 연구위원, 기획위원, 실무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연구위원과 실무위원은 젊은 교수와 직원을 위주로 선발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찬신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선발과정에서 신진인력이라는 부분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 또한 기획위원은 처·실장 등 중진급 교수들이 중심을 이뤘고 어느 한 단과대에 치우치지 않도록 골고루 뽑았다. 오 총장을 비롯해 연구위원 및 실무위원이 지난 12월 27일 열린 연구위원회 방향설정회의를 시작으로 '108프로젝트'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대학발전예 기본적인 요소인 대학, 연구, 인프라구축 등을 포함한 그 외 주요골격은 KOTRAS장, 행사부 장관 등을 역임해 오면서 쌓인 오 총장의 경영마인드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김나리 기자 viki26@dongguk.edu



▲추진부 3차례의 당시 소견 발표



▲지ניה 12월 열린 이사회



▲지닌달 26일 취임사 발표



등록금 인상 = 교육여건 개선?!

등록금 인상에 따른 적극적인 교육여건 개선노력 필요

현재 우리학교 재단은 장충 수영장과 전산원을 수익사업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운영에 따른 전입금과 법정부담금이 몇 년 동안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재단의 사업 활성화 방안과 법정 부담금 및 전입금 확보를 위해 대안을 마련 중이지만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 밝혔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활용할 수 있는 적립금과 재단 사업자금이 있음에도 등록금을 인상시켜야 한다는 학교 측의 인상 근거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등록금 인상과 교육여건 개선

학생들이 학교 측에서 제시하는 인상근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등록금 인상에 따른 교육환경개선이 이뤄지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지혜(교육2) 양은 "등록금이 인상되는 만큼 학교 내 환경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개선되지 않아서 등록금 인상이 부담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건물 증축보다 우리학교 곳곳의 열악한 환경을 먼저 개선하려는 시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에 대한 부담이 큰 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교육여건이 등록금 인상 수준만큼 개선되고 있지 못하기에 등록금 인상 근거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입장이다.

또한 등록금 인상률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학교와 학생 양측간의 신뢰가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선아(영어통번역3) 양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등록금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오르게 됐는지에 대한 과정을 자유롭게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학교 측의 예·결산 및 회계산출 근거 공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결산 및 등록금 인상률을 책정하는 데 있어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신뢰를 회복해 등록금 인상 문제 논의에 있어서 학교와 학생대표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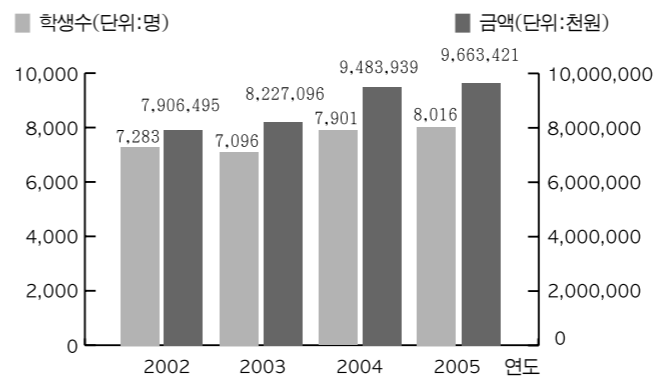
등록금 인상에 따른 교비환을 얼마나 이뤄졌나?

등록금이 인상되는 만큼 과연 교육여건은 얼마나 개선이 되고 있을까? 이처럼 학생들이 느끼는 등록금 인상 부담만큼 교육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지는 교비환율이 어느정도인지를 통해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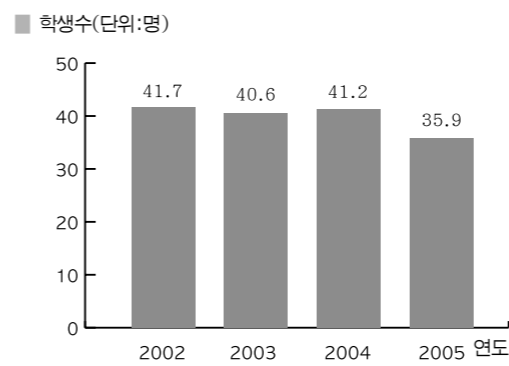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중 학생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연구비, 도서관구입비, 장학금, 실험실습비, 학생경비, 교원인건비 등으로 어느정도 사용됐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교비환율'이라 하는데 교비환율이 100% 이상 나왔을 때 등록금의 많은 비중이 교육여건 개선에 쓰였다고 볼 수 있다.

2006학년도도의 경우 교비환율이 114%로 나타났다. 학교 측은 "올해에도 강의시설 개선과 공간증축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할 것"이라 밝혔다.

장학금 수혜 현황



교수 1인당 학생수



올해 각종 사업 추진 통한 교육여건 개선 계획

▲기숙사·신공학관 건립 = 지난 해부터 감사 작업을 시행했던 기숙사·신공학관 건립 사업은 현재 민자유치사업(BTO) 방식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3월 1일자로 협상단을 발족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캠퍼스마스터플랜본부 정형주 계장은 "협상단의 3~4개월의 협상과정을 거쳐 인허가, 오는 9월에 착공에 들어가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숙사·신공학관 착공이 차

질없이 진행된다면 오는 2010년 신학기가 시작될 때 완공될 계획이다.

지난해의 경우 기숙사·신공학관에 6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던 것이 2006학년도 등록금 인상 근거로 제시돼 논란이 있었다. 올해에 진행되는 기숙사 공사는 민간자본 유치방식으로 이뤄진다. 학교 측은 "기숙사·신공학관은 민간자본유치방식(BTL)으로 공사가 진행되기로 확정됐기에 등록금 인상 및 교비 활용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건물증축 및 신축 = 캠퍼스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올해 안에 조기에 추진되는 증축대상 건물은 학술문화관(1개층 증축, 약 44억원), 정보문화관(1개층 증축, 약 13억원), 중앙도서관(1개층 증축, 약 26억원), 본관(1개층 증축, 약 50억원)이고, 단기적인 리모델링 사업추진 대상 건물은 원흥관(1순위, 약 5억원) 학림관(2순위, 약 19억원)이다. 올해 증축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200억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다.

이 비용에 대해 학교 측은 "건축기금 200억원엔 건축기금 100억원, 산학진흥재단특별 용자로 60억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기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 근거중 하나인 가계곤란장학 확대와 관련해서는 학교 측은 "현재 장학과에서 접수를 받는 중이다. 장학 수혜 기준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나중에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이 어느 정도나 나올지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등록금 인상이 대학 발전에 있어 불가피한 결정인지 아니면 무리한 인상인지에 대한 대학과 수요자 간에 입장 차가 크다. 그동안 등록금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제시돼 왔지만, 방안으로만 제시됐을 뿐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학교측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늘리고 정부도 대학에 대한 지원을 점차적으로 늘려야 한다. 또한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대학과 학생간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등록금 책정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해 예·결산책정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강지혜 기자
iamjh713@dongguk.edu

등록금 왜 인상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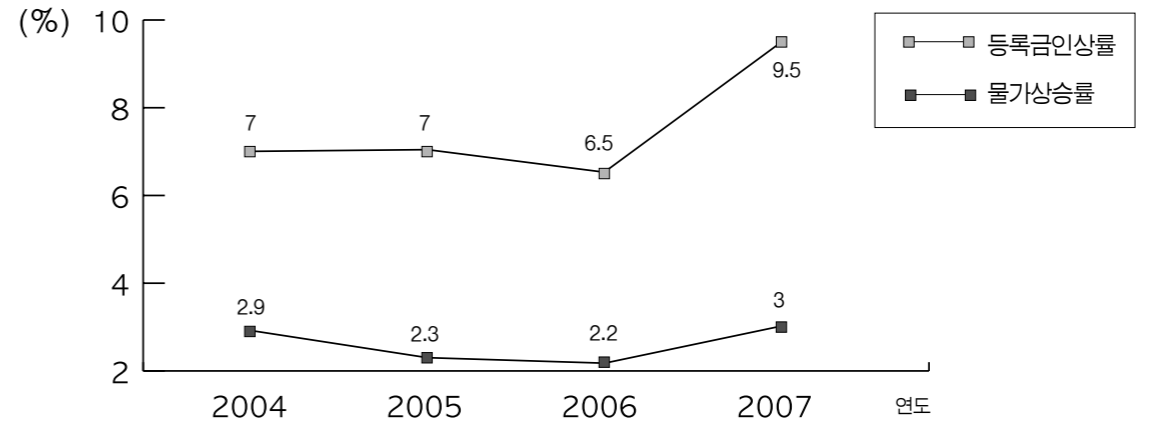
학교 내부적인 학교 재원을 구성하는 것은 등록금, 법인전입금, 기부금, 국고보조금이다. 우리학교는 현재 세입 중 등록금 비율이 78.7%로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편이다. 대학운영 재원 4가지 중 등록금의 비중이 가장 크고 고정적이기 때문에 각 대학은 우선적으로 등록금 수입에 의존해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특히 법인전입금은 몇 년 동안 재단으로부터 거의 총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등록금 의존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학교 5년간 등록금 인상근거

| 연도 | 등록금인상요인(인상근거) |
|-------|--|
| 2003년 | △구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경주 캠퍼스 본관 건립 △장학금 확대 |
| 2004년 | △주요사업 진행 △신규 교직원 총원 △교직원 인건비 인상 △물가인상 |
| 2005년 | △물가인상률 △교원임금인상 △100주년행사 준비금 |
| 2006년 | △교원교수 확충 △100주년 행사 △기숙사 공학관 건립 |
| 2007년 | △마스터 플랜 실현과 관련된 건물 신축, 증축 △특성화 분야의 선택적 집중 △학생정원감축 및 교원증원 △가계곤란장학의 확대 |

우리학교 4년간 등록금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풀리지 않는 실타래 함께 풀어요

-학생상담센터 이동안내-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재학생 여러분의 풍요로운 대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다음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학생상담센터에서는 이런 일을 합니다

- 1. 심리검사 : 대면적심리검사(MMPI), 성격유형검사(MBTI), 에니어그램 검사, Strong 진로탐색검사, 적성탐색검사, 직업흥미검사를 수시로 실시합니다(무료). 심리검사 이후 해석은 물론 여러분의 성격, 진로 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 2. 개인상담 : 전문상담원과 상담센터 관계 교수가 학업, 성격, 대인관계, 직업 및 진로선택 등 대학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별적으로 전화상담(Tel.2260-3931, 3932), E-mail 상담을 실시합니다.
- 3. 집단상담 :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함께 문제를 해결해갑니다. (월 화기 2월 11일 10월 8회기)
- 4. 진로지도 : 개인의 특성·흥미·소질·능력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적성검사 및 직업흥미 검사 전공 선택 검사 등)를 바탕으로 개인의 진로·직업 고안과 전공 선택 및 합리적 진로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5. 올바른 성의식과 성 고충상담 : 성고충상담원이 상주하여 성희롱 및 성추행 등 양성평등에 관한 고충을 상담해 드립니다.
- 6. 심리특강개최 : 교양과 정서함양을 위해 학내외의 저명한 인사를 초빙 강연을 실시합니다.
- 7. 외국유학생 및 재외국민 대상의 집단상담 실시 : 외국유학생들과 재외국민 학생들의 학에서의 생활 적응을 위한 집단 상담을 실시합니다.
- 8. 학사경고 누적자 및 재 입학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 학사경고 누적자나 재입학을 하는 학생들을 위한 상담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학생상담센터는 본관 2층에 있으며, 전화는 2260-3931, 3932입니다.
* 학생상담센터 홈페이지 주소 http://counseling.dongguk.edu

학생상담센터

이런 심리검사가 있어요

새로운 시작과 함께 찾아오는 크고 작은 기대와 설렘들, 이 순간을 보다 의미있게 보내고 싶어... 나와 너를 더 잘 이해하고 진로 및 적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검사가 있다면, 우리 함께 심리검사를 받으러 갈까요?

| 검사 종류 | 소요시간 | 비용 |
|----------------|--------|----|
| MBTI(성격유형검사) | 30~40분 | 무료 |
| MMPI(다면적 인성검사) | 50분 | 무료 |
| 에니어그램 | 30분 | 무료 |
| 적성탐색검사 | 30분 | 무료 |
| Strong 직업흥미검사 | 30분 | 무료 |
| Strong 진로탐색검사 | 30분 | 무료 |

* 검사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생상담센터(본관 2층, 구내전화 3931)로 오시면 됩니다.
* 학교 또는 동아리 단위의 단체 검사(20명 내외)를 희망하는 경우는 출장 검사도 가능합니다.
* 더 많은 걸 알고 싶으시면 학생상담센터 홈페이지에 놀러오세요
→ http://counseling.dongguk.edu/

새내기가 궁금해요

신입생 실태조사 안내

언제해요? 3월 9일 ~ 3월 18일
어디서해요? 학교 구석구석 어디서나
누가해요? 07학번 새내기
왜해요? 학교에서 새내기 여러분들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새내기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보다 알차고 재미있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입니다.^^

동국 참사람 인증제 안내

동국 100주년을 기념하여 정립된 동국 인재상 반영하고 재학생들에 대한 분교 인증제의 참여 의식 고취시키기 위하여 분교의 인증제 「동국 참사람 인증」으로 변경하여 시행됩니다. 「DCEP(Dongguk Career Elite Program)」으로 시행되던 분교의 인증제가 「동국 참사람 인증」으로 명칭변경과 함께 이수요건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있으시길 바랍니다.

| 구분 | 공통 | 이수요건 | 프로그램별 | |
|------------|--|---------------|------------------------------------|------------------------|
| E(thical) | | | · 사회봉사 1회(33시간), 산사의 생활(1회) 중 택 1. | |
| Leader | · 21세기 리더십 강좌 (3강좌) 중 1강좌 이상. (리더십 캠프도 인정함). | | · Junior 세미나 1강좌, 공모전 등 중 택 1. | |
| C(reative) | | | · 현장실습, 취업캠프(HRDP), 해외탐방 중 택 1. | |
| Thinker | | | | |
| Y(oung) | ·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사이버강좌 6강좌) 중 3강좌 이상. | | | |
| Challenger | | | | |
| Career | | | | |
| Woman | | · 평점평균 3.5 이상 | | · 3-Stage 취업전략 프로그램 이수 |

< 3-Stage 취업전략 프로그램 >

| 구분 | 자기진단 단계 | 능력개발 단계 | 실적적용 단계 |
|---------|--|-----------------------------------|--|
| 1-Stage | · 직업선호도 검사(필수), · 스펙트럼 진로탐색 검사, MBTI 성격검사, 에니어그램 성격검사, 직업기차관 검사 중 택 1. | | |
| 2-Stage | | · MOS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매주 16시간 X 4주). | |
| 3-Stage | | | · 노동부 CAP 프로그램 [16시간], 커리어우먼 아카데미[18시간] 중 택 1. |

- 공통 요건과 프로그램별 이수요건을 이수(충족) 했을 때 각각의 영역에서 인증서 발급.
- 인증영역에 따라 동국참사람 E Leader, 동국참사람 C Thinker, 동국참사람 Y Challenger, 동국참사람 Career Woman의 인증서 발급.
- ACE 등급 위에서 제시한 각 영역을 이수(충족) 하고 아래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인증. ▶ 외국어 : 토익 850, CBT(250), 텡스 780점 중 한가지 이상 취득. ▶ 컴퓨터 활용 : 컴퓨터 관련 자격증(국가공인, MOS) 2급이상 취득. 예) E Leader (ACE), C Thinker (ACE), Y Challenger (ACE) 등.
- 시행시기 : 200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

학생처 취업지원센터

‘원탁테이블’, 제대로 된 협의 가능한가

원탁회의 통해 학교·학생대표 입장만 확인 ... 발전적 논의 끌어내지 못해

각 학교와 총학생회는 지난 1월부터 등록금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학교 측과 협의의 자리를 마련해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합의점을 찾으려 하고 있다. 우리학교의 경우에도 지난 1, 2월 등록금 인상률 협의를 위한 원탁테이블이 학교 측과 2차례 걸쳐

진행됐다.

‘원탁테이블’은 지난해 제38대 총학생회 공약에서 등록금 협의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학교에 전달하고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자 추진된 제도이다. 지난해에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시행된 3차례 걸친 원탁테이블 자리에서는 학교 측과 학생회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바 있었다.

지난 1월 23일 진행된 1차 원탁테이블에서 학교 측과 학생대표들은 △지난해 수입과 지출 내역 △수입 대비 크게 책정된 지출을 사안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통해 학생대표 측이 수입에 비해 지출을 높게 책정한 점을 문제로 제기하자 학교 측은 “휴·복학생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을 보수적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1차 원탁회의 후 학생대표 측은 회의를 통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던 사항을 포함한 ‘19가지 질의사항’에 대해 학교 측에 회신을 요청했다. 이를 후인 25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19가지 질의사항’이 회신되지 않는 점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19가지 질의사항’이 회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학교 측은 “하루 만에 답변은 불가능하며 1차 회의를 하면서 일부에 대해 답변했다”라 답했다. 그 후 2월 1일 진행된 2차 원탁테이블까지 별다른 진전 없이 양 측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원탁회의와 공청회 등 학교 측과 학생대표가 협의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지만 정작 그 자리를 통한 논의는 다른 학교의 협의 자리와 달리 3차례에 불과했고 협의 자리에서는 양 측이 서로에 대한 의견을 내세우고 각각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발전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1차 원탁회의 후 공청회가 진행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탁테이블이 본래의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이 현 시점의 한계로 나타났다. 현재의 대화체계로는 등록금 인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만 것이다.

지난 1월 25일 열린 공청회에서 학생대표 측은 “학교 측이 단순히 인상에 대한 설명만 해주고 학교와 학생간의 토론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최은철(경영4) 부총학생회장은 “이번 2차례 원탁회의에서 내세운 학생들의 의견을 학교 측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 측은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밑에 답변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학교 측은 “원탁테이블에서 학생들은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이 자리를 통해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했다.

학생대표 측은 학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길 바라고 학교 측은 등록금 문제가 다각도에서 접근이 가능한 만큼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을 반대할 것만이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양측의 입장을 좁히지 못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의사소통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해 신속한 의견교환이 어렵다는 점도 학회가 개강 후 학회가 등록금 협의를 끌고 온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지난번에 총학생회에서 학교 측에 요구한 ‘19가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현재까지 없다고 한다.

학생대표 측이 1차 원탁회의 후 질의사항을 전달했지만 학생복지실을 거쳐 기획예산팀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복지실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신입생장 취임 이후 자체개편과 인사이동이 이뤄지면서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혼란을 겪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양 측이 보다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와 학생회가 의사소통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양 측 간에 협의를 통해 절충안 혹은 발전적인 안을 이끌어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윤재 기자

lyoonjae@dongguk.edu

등록금 협의 과정

| |
|---|
| 1차 회의 |
| - 학교 측에서 PPT자료 발표(1. 2007 환경분석 2. 2007재정운용기본방향과 예산편성 3. 지출예산 개요 4. 예산 확보 방안 5. 등록금 참고자료 순) - 학생대표 측에서 전년도 수입 및 지출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지출 내역에 의문점을 던진, 물가인상률 정도의 등록금 인상을 요구 |
| 공청회 |
| - 학교 측에서 1차 회의와 같은 자료를 일반 학생들에게 설명 - 학생대표 측에서 ‘19가지 질의 사항’ 회신이 늦어지는 것에 문제 제기 - 단과대별 등록금 인상을 책정 요구 |
| 2차 회의 |
| - 학생대표 측에서 ‘19가지 질의 사항’ 회신이 계속 늦어지는 것에 문제 제기, 구체적인 등록금 인상 수치 제시 - 학교 측에서 인상률은 이사회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 답함 |



▲ 지난 1월 23일 1차 원탁회의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등록금 예고제로는 등록금 인상 막을 수 없어

예고제 및 반값 정책 실현성 적어 ... 전입금 및 기부금 확충 필요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

정부는 89년부터 사립대학 등록금을 자율화했다. 그 결과 사립대학들은 매년 5~15%씩 등록금

을 인상했고, 05년부터 ‘등록금 1천만원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다. 지난해 소득 하위 20%의 월수입이 83만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국민 5명중 1명은 1년 수입을 다 모아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등록금 예고제의 한계

올해에도 등록금은 5~10%씩 인상되었고, 대학가에서는 ‘부당한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며 교육부와 사립대학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007년 교육재정은 GDP 대비 4.96%로 대선 공약인 6%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법인전입금은 운영수입 대비 4.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등록금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자 교육부는 올

해 주요업무계획에서 등록금 예고제를 도입하고, 적립금을 비롯한 대학재정 공개를 통해 등록금을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예고제는 여러 대학에서 시행했다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폐기된 제도이다. 부산대는 한자리수 인상률을 적용해 예고제를 시행했지만 2년 만에 철회했으며, 원광대는 입학 때 예고한 등록금으로 4년간 동결시켰지만 학교 재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내년 시행이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대구교대는 00년 등록금이 전국 11개 교대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었는데 01년 예고제 도입 이후 지난해 신입생 기준으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대구교대 사례는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에 반발할 것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손쉽게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고제가 회의적인 또 다른 이유는 4년 후의 경

계성장률과 물가인상률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길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년치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예·결산 차액을 남겨 과도하게 적립금을 남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립대학의 현실이다.

적립금 내역 공개도 정보 공개 차원에서 의미를 가질 뿐 등록금 안정 방안과는 무관해 보인다. 결국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갈등 해소 차원에서 접근해 실효성이 없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등록금 반값 정책의 현실성

한편 한나라당은 새해가 시작되고 바로 ‘등록금 반값 정책’을 발표했다. 사립대에 기부금을 내

되면 10만원 세액 공제를 해주어 기부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가차원에서 1~2조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해 저소득층과 이공계 우수인재를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사병 급여를 두배 이상 올려 인상된 금액을 적립해 군대 제대 후에 등록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등록금 반값 정책’은 ‘부동산 반값 정책’에 이어 용어가 국민들에게 주는 기대감이 크게 다가온다. 하지만 이들 정책으로 어떻게 등록금이 반값으로 낮춰지는지 설명되지 않으며, 추가 재원 확보 방안도 현실성 있게 마련되지 않았다. 점에서 정치 공세적 측면이 강하다 할 수 있다.

등록금 인상문제 해결 방안

등록금 인상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국가 교육재정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현 정부에서 이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을 제한하는 법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 외에도 사립대학은 전적으로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수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법인전입금과 기부금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대학 구성원들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교육 재정 확보와 등록금 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각 후보들과 당당에 요구해야 한다.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업종·직종별 전문가 릴레이특강]

겨레년배게 전문 및 취업방법을 제시하고 고학년에 계실정적이고 구체적인 취업의 결정 기준을 제공하고자 1학기 [업종·직종별 전문가 릴레이특강]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대상 : 전학년
2. 접수인내 : 1회~10회 접수: 본관 취업지원센터 신석순 접수 (본관 2층 취업지원센터 채희원/교내 3935)
3. 모집인원 및 장소 : 희망 신청은 100명 다양한 세미나실
4. 강의내용 : 업계 전망 및 동향 / 업종의 특징 및 인재상 / 근무환경 / 주요업무내용 및 분위기 / 취업전략(기본요건, 개인역량, 자격요건 등) / 질의응답
5. 프로그램 안내 및 행사일시 (오후 5시30분~7시30분)

| 회차 | 일시 | 내용 | 강사명 | 소속 |
|-----|-------|--|-----|---------------|
| 1회 | 3월20일 | 2007년 업/직종별 채용시장 기성도 | 정유민 | job코리아 상무 |
| 2회 | 3월27일 | (IT업) 유비쿼터스 시대 새로운 일꾼되기 - 채용 동향 및 입사전략 | 공효식 | LG전자 인사팀 과장 |
| 3회 | 4월3일 | <금융업(은행)> 금융권을 JOB이라 -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 박태상 | 기업은행 인사부 과장 |
| 4회 | 4월10일 | <건설업> 취업현황 해보자 -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 한웅석 | 포스코건설 인사기획 팀장 |
| 5회 | 4월17일 | <영업직> 판매왕 될 수 있다. -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 박노진 | 대우자동차 상무이사 |
| 6회 | 5월9일 | <유통업>유통시장을 알면 직장이 보인다 -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 심학보 | 삼성테크노 채용과장 |
| 7회 | 5월16일 | <공기업> 바늘구멍 통과 전략 -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 고태호 | 한국토지공사 인사채용과장 |
| 8회 | 5월22일 | <교사> 사립학교를 알아! -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 민 해 | 혜원여자고등학교 교감 |
| 9회 | 5월29일 | 이재용 떠나서 따라잡기 -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 이재용 | MBC 아나운서 |
| 10회 | 6월5일 | 큐레이터가 되고싶다! - 채용동향 및 입사전략 | 이추영 | 국립현대미술관 |

학생처 취업지원센터

노동부 대학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커리어우먼 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여학생의 진로관리능력 향상과 취업률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커리어우먼 아카데미)를 시행 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여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참가일정 장소 및 대상 : 2007. 3. 15(목) ~ 2007. 3. 18(일) 본관 회의 72(인문과학) 여대생
■ 참가일정 장소 및 대상 : 2007. 3. 30(목) ~ 2007. 4. 10(일) 본관 회의 72(인문과학) 여대생
■ 참가일정 장소 및 대상 : 2007. 5. 11(목) ~ 2007. 5. 13(일) 본관 회의 72(인문과학) 여대생

■ 프로그램 안내 :

| 구분 | 시간 | 교육명 | 장사 |
|-----|-------------|---------------------------------------|--|
| (목) | 17:30~19:30 | 오리엔테이션 및 자기진단서 MBTI성격검사/직업성숙도검사 | 진로교육상담팀, 진정성 |
| | 9:00~10:50 | 여성의 생애설계와 비전만들기 | 자문당 (피도인) |
| | 11:00~12:50 | 여성 셀프리더십 | 손은영 (피도인) |
| (토) | 13:00~13:50 | 점심시간 및 Break time | |
| | 14:00~15:50 | WOMAN 커뮤니케이션 효과적인 스토리텔링 기법 | 이은정 (피도인) |
| | 16:00~17:50 | 면접 Image Making | 홍영애(이대진), 박연(두산에너지), 김희정(우미엔) |
| (일) | 18:00~20:00 | 인사서류 클리닉 | 송영희, 이소영, 황희정, 이가영 (취업지원센터) |
| | 10:00~11:50 | 담당 컨설턴트의 전공별 소그룹 클리닉 (국·영문이력서, 자기소개서) | 송영희, 이소영, 황희정, 이가영 (취업지원센터) |
| | 12:00~12:50 | ★커리어우먼 직업찾기★ 여성유망직종 탐색 및 취업전략 | 이유진 (취업지원센터) |
| (월) | 13:00~14:50 | 커리어우먼 실전 액션 | 김주영(삼성전자), 김민정(삼성전자), 조은지(삼성전자), 김민정(삼성전자), 김민정(삼성전자), 김민정(삼성전자) |
| | 14:00~15:50 | 담당 컨설턴트의 전공별 소그룹 오리엔팅 시뮬레이션 | 김주영(삼성전자), 김민정(삼성전자), 조은지(삼성전자), 김민정(삼성전자), 김민정(삼성전자), 김민정(삼성전자) |
| | 15:00~16:50 | 영어면접 스킬 | 김민정(삼성전자), 김민정(삼성전자), 김민정(삼성전자), 김민정(삼성전자) |
| (일) | 17:00~18:30 | 선배와의 대화 | 김민정(삼성전자), 김민정(삼성전자), 김민정(삼성전자), 김민정(삼성전자) |
| | | 최근 입사에 성공한 선배들 성공담 듣기 | 김민정(삼성전자), 김민정(삼성전자), 김민정(삼성전자), 김민정(삼성전자) |
| (일) | 18:30~19:00 | 행사 평가 설문조사 및 수료식 | 진로교육상담팀 |
| | 19:00~20:00 | 멘토링 TIME 선배·후배 식사 및 간담회 | 진로교육상담팀 |

■ 접수인내 : 본관 2층 취업지원센터 신석순 50명 접수 (문의 : 본관 2층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상담팀 채희원/교내 3935)
■ 접수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취업지원센터에서 제공)
■ 모집인원 : 교수별로 신청순 50명 (예비인원 50명까지 신청가능)
■ 특 전 : 점심식사 및 음료/디과 제공
수료증 발급(이력서작성 용의) : 신청한 인원이 3명 이상이면 시 필수 요건 사항
우수참여학생 기립 3명선발 상패 지급(10GB, USB 메모리장치)
프로그램 종료 후 입학지원센터 그룹 스터디 그룹으로 연계 (발행비지정)

학생처 취업지원센터

상반기 삼성계열 취업대비 SSAT모의직무적성검사 실시

학생처 취업지원센터 진로교육상담팀입니다. 상반기 삼성인사 전형 중 SSAT직무적성검사 시행일이 3월 25일로 예정됨에 따라 재학생/졸업생 여러분의 기업직무적성이해에 도움을 주고, 직무적성검사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자 (주)에듀스에 의뢰하여 SSAT 모의직무적성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번호 | 구분 | 내용 |
|----|---------|---|
| 1 | 검사종류 | SSAT 모의 직무 적성 검사 |
| 2 | 일시 및 장소 | 검사일시일 - 3. 14(수) 오후 3시 ~ 7시, 본관 중앙당 |
| | | 피드백 설명회 - 3. 19(월) 오후 5시 ~ 7시, 본관 중앙당 |
| 3 | 소요시간 | 240분 |
| 4 | 검사대상 | 취업준비 중인 재학생/졸업생(휴학생 가능) |
| 5 | 검사비용 | 무료(13,200원 학교전액 부담) |
| 6 | 접수일시 | 홈페이지 인터넷 600명 선착순 접수 2007. 3. 5(월) 09:30 ~ |
| 7 | 제한사항 | 접수 후 미응시자는 사유서 제출 미제출시 차후 응시 기회 제한 (매 학기중 2회 실시예정임) |
| 8 | 기타문의사항 | 진로교육상담팀(교내 : 3935), 이메일(job@dongguk.edu)으로 연락요망 |

학생처 취업지원센터

열린글터

독자 여러분의 글과 사진을 기다립니다.
 동대신문은 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독자여러분이 직접 찍은 사진이나 만화, 단행, 4대 분량의 글 등을 게재합니다.
 채택된 글에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dgupress.com E-mail dgupress@dgupress.com
 TEL : 2269-3481~2 FAX : 2279-1270

새날학교, 5일간의 새로운 경험

처음 '새날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을 때 "O.T.와 새터틀 다녀온 우리에게 이젠 또 무엇일까?"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새날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새날학교에 대한 애정은 커졌다. 첫째날, 우리 새내기들과 선배님들은 3반으로 조를 나눠 일정을 시작했다. 꼭 불교대 학생이기 때문이 아니라 불교를 기반으로 건립된 동국대 학생으로서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춰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였다. 먼저 출가에 대한 영상을 시청 후,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을 했다. 불교를 막연하게 느꼈던 나에게 선배님들은 불교와 관련된 견해뿐만 아니라 토론의 요령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 이제껏 학교에서 주입식 교육만 받아온 나의 닫힌 생각들은 조금씩 열리게 되었다. 둘째날에는 각 학과의 교수님들이 직접 전공 설명을 해주셨고, 이어서 선배님들이 화점관리나 복수전공, 봉사활동 등 대학생활에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대학 입학 후 생소하고 궁금했던 것들을 해소할 수 있었던 유익

한 시간이었다. 수요일엔 '영화 매트릭스로 본 불교철학'이란 주제로 영화감상 후 조마다 각각 다른 주제로 불교사상과 관련하여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뒤 이를 정리하고 발표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비판적이며 폭 넓은 관점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요가와 질수행, 다도를 배우으로써 다른 곳에서는 쉽게 할 수 없었던 색다른 체험들을 할 수 있었다. 후배들 배고플까봐 밥 사주시라, 이번 새날학교를 위해 늦은 저녁 시간까지 자료준비와 회의로 애쓰셨던 선배님들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불교대1)

우리학교 홍보대사 '동감' 활동기



2006년 3월 초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했던 우리 동국대학교 홍보대사 '동감'이 벌써 1주년이 되었다. 처음엔 '건학 100주년 서포터즈'였지만 우리의 인연은 100주년 기념에만 그치지 않고, 홍보팀, 통역팀, 촬영팀으로 나뉘어, 앞으로 계속 학교를 홍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우리가 직접 만든 공식 명칭 '동감' (같은 생각, 동국인의 생각이라는 이중적 의미로, 동국인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됨을 뜻함)이 되었다.

입학과 함께 떨리는 맘으로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워크숍을 다녀오고 최종 합격했던 지난 순간들을 떠올려보면, 아직도 설레이기만 하다. 대학생 때 꼭 해보고 싶은 일들 중 하나였고, 서로 다른 전공을 가진 사람들과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100주년 서포터즈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내게 선물해 주었다.

2006년 5월 1일, 단정한 파란색 단복을 입고 팔정도에서 우리의 첫 행사였던 '서포터즈 발대식'을 치루었다. 뿐만 아니라, 학교 홈페이지와 입시홍보책자 등에 실릴 사진 촬영에 참여하면서 밝고 젊은 우리 동국대학교의 이미지를 알리려고 노력했다. 무엇보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의 첫 대외활동이었던 '건학 100주년 기념식'인데, 외부 유명인사들을 직접 안내하며 기념식 곳곳에서 행사를 더욱 빛내기 위해 각자 역할을 맡아 여러 가지 일을 했다. 또한 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던 10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와, 20

'동감' 하실래요?

만 동국인이 한자리에 모인 '동국인 한마당 대축제'는 캠퍼스 곳곳과 대운동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행사안내와 진행을 맡아, 동국인의 한 구성원으로서 한층 더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이 날 총장님 의전이 끝난 후,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재학생이 함께 만해광장에서 어깨동무하며 노래 부르던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밖에 캠퍼스투어, 대학교육인사 박람회, 모교방문단, 국제학술회의 통역, 총장님 의전 등 중요한 학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여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교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학교 홍보대사로서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4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한 번 뿐인 대학생활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보다 남과 다르고 특별한 대학생활을 원한다면 학교 홍보대사 '동감'에 지원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그 경험으로 인해 자신의 모습과 삶도 변화될 수 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좋아하며 밝고 열정적인 1~2학년 학생들의 지원을 기대합니다. 한국한5월, 함께 같은 단복을 입고 진행될 두 번째 발대식을 기다리며, 백수현(생지대 식공2)



학부생 체계적 관리 필요

새 학기를 시작하며 무리지어 웃고 떠들며 학교를 누비고 다니는 신입생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작년 내 모습을 보는 것 같다. 많은 학생들이 학부로 입학하여 자신의 전공을 찾기 위해 수업을 들으며 설레고 있을 것이다. 요즘 들어 많은 대학들이 학부제로 신입생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 학교 역시 학부제를 다수 선택하고 있으며 나 역시 학부제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이러한 학부제가 많아지게 된 이유는 학생들로 하여금 1년간의 대학 생활을 통해 자신의 적성을 찾기 위한 강의를 들어보고 꼭 맞는

과를 선택해 진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전공 결정을 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망설이게 된다. 왜냐하면 전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1학년 때는 전공을 포함한 전 학부의 주요과목들을 배우게 되고, 그를 기초로 해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 전공과목에 대한 단순 흥미나 대다수 학생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특정 인기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다. 허나 이것은 전공을 결정하는데 있어 신중치 못한 판단이다. 물론 자신이 흥미롭게 느껴지는 전공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평생 자신과 함께 가야할 전공을 학부 때 배우는 과목들로 선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학생들의 신중한 선택을 돕기 위해서 학교는 각 학과 전공에 대한 전문적 지식정보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작년에 열렸던 단순한 설명회보다는 지속적인 관리와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특정 학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과차원에서 그들을 관리하며 전공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자신의 적성을 찾지 못한 학생은 그들을 각 단과대 행정지원실에서 관리하며 다양한 전공을 알아가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승민(경영대 경영2)

당신이 먼저 사랑이 되십시오

우리는 보통 다른 이가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주기를 기다립니다. 연애에 있어서나, 혹은 생활에 있어서나 누군가가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길 기다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는 왜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니?'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보통 가슴이 뜨겁한 표정으로 '누군가 내게 손을 먼저 내밀어 준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 다른 사람들이 내가 손을 내밀면 쳐낼까봐 무서워.' '남들이 내게 준 적이 없는데 내가 왜 그래야 되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이를 만나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각박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당신이 손을 내밀기를 어렵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손을 내밀기를 어렵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손을 기다린다면, 당신이 누군가의 손을 잡아보길 원한다면, 오히려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을. 당신이 마음을 열 수 있을

때, 두려움 많던 당신의 모습처럼 누군가의 손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당신의 손을 맞잡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신에게 제안합니다. 만일 당신이 사랑받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사랑이 되십시오. 햇빛이 태양으로부터 퍼져나가듯, 사랑은 당신으로부터 퍼져나가게 되어, 그것이 당신에게로 돌아와 모두들 당신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미소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한줄기 빛입니다. 이종학(문과대 철학2)

금주의 식단

| | 동국관 | 상록원 | 교직원 | 원 향 |
|----------|--|---|---|---|
| 월 (3/12) | 갈비경단 (2200) 쇠고기카레라이스 (2000) 쇠고기양송이볶음밥 (2000) | 섭산적구이백반 (2200) 참치김치볶음밥 (2000) 안동찜닭 (2000) | 된장찌개 (3200) 김치찌개 (3500) 지반우조림 (3500) | 건새우근대국 (2300) 철관김치볶음밥 (2900) 캔참치비빔밥 (2500) |
| 화 (3/13) | 오징어상추비빔밥 (2000) 치킨탕수 (2000) 참치회덮밥 (2000) | 닭곰탕 (2000) 돈육고구마김장 (2000) 두부김치 (2000) | 된장찌개 (3200) 통태매운탕 (3800) 제육볶음 (3500) | 쇠고기무국 (2500) 수제함박스테이크 (2900) 순대야채볶음덮밥 (2500) |
| 수 (3/14) | 사골우거지탕 (2000) 돈육고추장볶음 (2000) 돈육김치찌개 (2000) | 부대찌개 (2000) 중국식볶음밥 (2000) 닭꼬치양념구이 (2000) | 된장찌개 (3200) 육개장 (3500) 삼치구이 (3500) | 미역국백반 (2500) 양념비빔밥(2인분) (5000) 떡볶이고추장불고기 (2900) |
| 목 (3/15) | 감자탕 (2000) 미트소스볶음밥 (2000) 닭도리탕 (2000) | 손만두국 (2000) 탕수육 (2000) 낙지콩나물비빔밥 (2200) | 된장찌개 (3200) 함박스테이크 (3800) 산채비빔밥 (3500) | 매운콩나물무국 (2300) 새우볶음김치탕수육 (2900) 닭곰탕 (2500) |
| 금 (3/16) | 설렁탕 (2000) 치즈돈가스 (2500) 참치김치덮밥 (2000) | 잡채&소고기무국 (2000) 오삼불고기덮밥 (2200) 오므라이스 (2000) | 된장찌개 (3200) 완자전골 (3500) 베이컨김치볶음밥 (3500) | 김치계란국 (2300) 일식돈가스 (2900) 오징어야채덮밥 (2500) |



독자 사진첩

빛과 어둠의 만남을 따라보다

사진은 따라보기가 아니라 어떤 이는 사진적 시선을 갖기도 하고, 어떤 이는 갖지 못한다.

조려진(국세대 영문2)

지나오 동대신문을 읽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신문되길

새로이 봄 학기를 맞이하며 학기 시작 첫 주에 발간된 동대신문에는 오영교 총장의 취임소식과 새내기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들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나 108 프로젝트에 따라 고객, 효율, 성과 중심의 대학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오영교 총장의 공약을 분야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나타낸 부분은 유익했으나 새로운 총장에 학생들이 기대하는 점이나 앞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글들은 좀 더 크게 다루지 않아 아쉬웠다. 오영교 총장의 취임소식과 함께 1면을 차지한 등록금 인상에 관한 기사는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의 관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다. 학교와 총학생회간의 의견 대립사항과 세 차례에 걸친 원탁회의 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어 등록금 인상에 관한 이유와 의견 등을 상황 등을 알 수 있어 유용했다. 매년 오르는 등록금을 총학생회

가 학교와 잘 조율하여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조용한 바람을 넘어 학생 개개인 모두가 학교의 재정 지출 사항과 예산 확보 방안 등에 관심을 가지고 인상에 비해 충분히 개선된 학교를 제망할 수 없는 학생들의 고충을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7학년도 신입생들을 위한 학사제도나 수강신청 정보들은 대학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들에게 유용했을 거란 생각이 든다. 또한 동아리 가이드 맵도 활기찬 동아리 생활을 기대하는 새내기들에게 동아리의 종류와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유익한 기사였다. 지난주 동대신문은 새 학기의 시작인만큼 대체적으로 새롭고 활기찬 소식들이 많았다. 신문사는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도 학생들의 소리를 대변하는 참된 신문고가 되길 기대해본다. 이햇님(사과대 정외2)

달하나 천강에

상상은 혁신과 창조의 근원-상상하고 상상하라



김 대 열 예술대 미술학부 교수

겨우내 움츠렸던 동학의 언덕 그리고 삭막하고 우중충하던 도시와 산과 들에도 흠족한 봄비가 내렸다. 그래서 세상은 아주 맑고 상큼해졌으며 봄은 성큼 다가와 곧 꽃들이 다투어 피어날 듯했는데, 오 며칠 이를 시기하는 꽃샘추위가 눈보라까지 휘몰아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 동학에는 이 정도의 꽃샘추위는 아랑곳없이 새로운 100년 도약을 위한 벽찬 열망, 새로운 총장님과 새로운 변화를 위한 태동의 열기가 봄의 서기(曙氣)와 함께 동학의 뜻생명을 약동시키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동국 가족이 된 새내기들은 경칩(驚蟄) 날 막 밖으로 뛰쳐나와 두리번거리는 개구리처럼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과 새로운 세계를 향한 무한한 의지의 눈빛을 번뜩이고 있다. 우리의 이러한 열정적 기운을 한데 아우른다면 "겨레를 위한", "인류를 위한" 동국의 새 역사는 창조될 것이며, 우리 각자의 '새로움'에 대한 의지와 욕망, 자아를 실현하여 우리의 세계관을 한껏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처럼 '새로움'과 '변화'를 요구하던 시대도 없었다. 그러나 이 '새로움'에 대한 전기(轉機)는 그리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

는 '엄매인'을 벗어 버릴 때, 즉 우리의 정신활동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이미 승인된 통상적인 방법의 '한계를 뛰어 넘어(boundary breaking)'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이룩된다. 모든 새로운 개념은 기존의 것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다. 기존의 것은 반드시 초월되어야 할 대상이다. 우리는 이 '새로움'에 대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창조성(Creativity)'이라 하며 이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을 창조적인 인간이라 말하고 있다. 100년 전의 사람들만 해도 하늘을 나는 것은 감히 상상(想像 imagination)조차 못했거나 상상 속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라이트 형제의 '상상'은 지구의 인력을 극복하고 하늘을 날게 되었다. 그들의 가슴속 깊숙이 있던 날고 싶은 '욕망'과 '상상'은 결국 '비행기' 즉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

상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창조된 비행기는 다른 사람들의 또 다른 '상상'과 결합, 변화에 변화를 거듭한 나머지 이제 하늘뿐만 아니라 우주공간 저 밖까지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상상은 눈에 보이는 지각 대상을 떠나 감지하고, 기억중의 객관 사물의 표상을 통하여 철저히 개조하여 '새로움'을 창조하게 된다. 오늘날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는 '창조성'과 '혁신'이 그 원동력이 되고 있다. 부다는 우리는 누구나 '깨달음' 즉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이처럼 위대한 창조성을 얼마나 발현하고 있는가? 창조의 근원인 우리의 무한한 '상상'을 한껏 펼쳐 '새로움'에 대한 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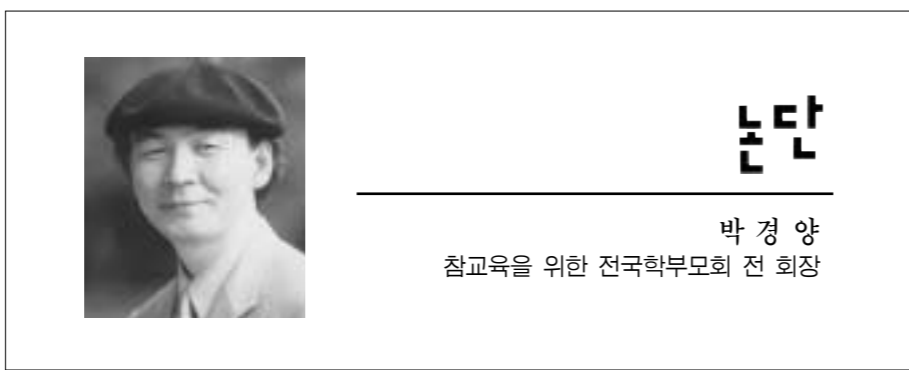
대학등록금 갈등... 정부와 대학측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개나리 피는 3월에 치른다고 해서 '개나리투쟁'이라 불리는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대학등록금 1천만원 시대, 6%대인 고등교육기관의 물가 고공 행진 등이 개나리 투쟁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등록금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220만원,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는 112만원이다. 이것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해서 우리사회의 서민들이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빚지 않고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더욱이 자녀의 대학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단순히 등록금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책값과 생활비 등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대학 등록금은 노동자나 서민의 가계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되면 대학교육은 일부 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

대학등록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의 질은 이에 상응하는 만큼 높아지지 않고 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대학등록금은 1997년과 비교하여 2005년에 44~53%가



논단

박경양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 회장

인상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증가율 27.9%의 2배에 달한다. 그러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97년 33.5명에서 2004년 35명으로 오히려 늘었고, 학생 1인당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는 32만6천원에서 26만2천원으로 줄었으며,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와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는 소폭 늘었지만 등록금 인상률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등록금 갈등 해결 정부 노력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한 대학가의 개나리투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먼저 정부가 나서야 한다. 2005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규모는 OECD국가 평균인 GDP 대비 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4%

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반해 GDP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의 65%에 불과하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부담 대민간 부담도 0.3% : 1.9%로 민간부담이 국가부담의 6배가 넘는다. 이렇듯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는 정부의 태도가 대학등록금 인상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금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학에 대한 국고지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대학별 재단확충 방안 모색

대학의 노력도 선행되어야 한다. 재정이 모자란다면 먼저 어떻게 쓰일지 용도도 불분명한 적립금을 모두 5조7천677억원이나 쌓아두고 있는 대학들의 태도는 용납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학들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대학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 등록금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나 동문들의 기부금을 확보하거나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나아가 사학재단들도 대학재정 확충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많은 학교법인들이 엄청난 규모의 수익용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쌓아만 두고 있거나 재산을 확대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법인들이 이런 태도를 견지하는 한 개나리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교법인들은 수익용 재산을 이용하여 최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여기서 얻은 수익을 대학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등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학생과 교수들이 연구와 학업에 전념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판에 그 소중한 시간들을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갈등으로 허비하는 것은 대학당국이나 학생 개인 나아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다. 때문에 대학당국이 그들의 주장대로 대학의 경쟁력이 정말 중요하다면 등록금 문제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뻔히 알면서 대학들이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며 학생들과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대학 스스로 자신의 도덕적 수준을 낮추는 것이다.

사설

108프로젝트, 변화의 출발점

우리학교 향후 4년간의 발전계획을 담은 '108프로젝트'가 공개된다. 오늘 오후 열리는 '108프로젝트선포식'을 통해 5개의 핵심분야를 주축으로 한 108가지 발전방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2011년의 우리학교의 발전상이 공식적으로 발표된다.

이번에 공개될 '108 프로젝트'는 획기적인 변화가 가장 필요한 현 시점에서 기존의 틀과 정체를 벗어날 수 있는 구체적 발전계획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우리 학교내·외부에서 지적돼 왔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진 틀이 마련된 것이다.

'108프로젝트'에서 강조하는 것은 '고객' '성과' '효율'이다. 대학발전의 가장 중요한 분야인 교육, 연구 분야와 더불어 전반적인 대학 발전을 이끄는 경영시스템이 '고객' '성과' '효율'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피력해 온 오 총장의 경영철학이 전체적인 프로젝트안에 잘 나타나 있다. 이는 기업방식의 효율적인 경영체제가 대학발전에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 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단과대 중심의 경영체제를 도입해 기존에 부작용을 낳기도 했던 본부중심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점 역시 기대할 만하다. 경영체계 혁신 중 가장 큰 변화이기도 한 본과제 체제를 시행해 경영에서의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본부중심체제에서는 특성 및 차별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했던 단과대학 및 학과가 특성을 살려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부분에서 세계적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화' 역시 그동안 다른 대학에 비해 뒤쳐졌던 부분이었던 만큼 양적, 질적 발전이 균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프로젝트안이 집진적으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안에 대한 실무진의 강력한 추진력과 함께 발전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과 참여, 지지할 것이 필요하다. 발전안을 위한 데안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은 비단 실무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학생과 20만 동문 및 모든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 선포식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첫 출발점이기도 하다. 지금부터 108프로젝트 발전목표 달성까지의 과정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

보리수

표절

나이 지긋한 스님 아수바짓이 탁발을 하러 거리로 나섰는데 젊은이 한 사람이 그 대답하고 평은 한 모습에 반해서 당신 스승의 가르침을 자기한테 좀 들려달라고 졸랐다.

“나는 잘 모르요. 출가한지 오래지 않아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아직 자세히 말할 수 없소.” “괜찮습디다. 기억나는 대로 들려주십시오.”

젊은이는 막무가내였다. “나는 말이 서툴러서 안 되요. 스승님한테 직접 가서 들으시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했다가 자칫 엉뚱한 것을 말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결국 시 한 수를 읊었고 그에 고무된 젊은이는 직접 스승에게 찾아가 제자를 되었다. 스승에게 들은 것을 전하는 일에조차 신중을 기한 스님으로 인해 불교교단은 지혜롭기가 으뜸인 선지식 사리불 존자를 얻은 것

이 미령
역경원연구위원

이다. 깨달지도 못했으면서 자기는 깨달았다고 신자들에게 말을 하며 공양물과 존경을 얻는 수행자에게는 거짓말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거짓말을 한 죄를 묻는다. 그는 추방당한다. 까짓 어차피 알아들을 사람도 별로 없는데 깨달았다고 말 한 마디 좀 했기로서니 무슨 그런 호들갑인가 싶기도 하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신다.

“그런 거짓말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믿음을 저버리기 때문이다.” 제 글도 아닌데 제 글인 양 표절하여 업적을 꾸미는 학자들이 자주 언짢은 오르내린다. 시대의 마지막 양심이 되어야 할 지식인들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 사람들의 신뢰가 안중에도 없나보다. 게다가 그들은 사리불 존자 같은 지혜로운 후학을 얻고 싶지도 않은가 보다.

메아리

우선과제

▲ 경제화의 기본 개념 중 '효율성 (efficiency)'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제한된 희소자원을 통해 최대의 효과를 얻는다는 뜻이다. 효율성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세세한 선택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이 선택에는 언제나 포기해야만 하는 것,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인간은 처한 그 때 그 때의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 즉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 시안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드디어', 혹은 '기어코'라는 부사가 따라다니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여 년간 이어져 온 5년 단임제의 공과는 충분히 드러났다. 따라서 4년 연임제를 통해 범국민적 논의의 기회를 만든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노 대통령의 주장대로 올해 개헌을 추진하자는 것도 틀린 말만은 아니다.

▲ 문제는 개헌 논의가, 시작도 하기 전에 대선을 겨냥한 정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는 점이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재집권을 겨냥하고 정치적 술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청와대에서는 이 비판을 그대로 돌려주며 대선주자들에게 개헌 공약을 요구하는 등 서로의 잘못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청와대는 개헌 성사에 장애물이 될 뻔한 일들을 그만두고, 한나라당은 개헌 반대의 합당한 이유를 들 수 있어야 한다. 노 대통령 임기 말 많은 국정 과제와 민생 현안들이 개헌 논란에 묻혀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현 상황에서는 청와대와 각 정파 사이의 팽팽한 대립이 문제다.

▲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는 1년도 채 안 남았다. 그 시간동안 나라를 위한 무엇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생각해 내야 한다. 지금 나라의 최우선 과제는 개헌이 아니다. 지난달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는 사학법과 주택법 등 주요한 민생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무엇이 우선인가. 나라를 위해 언제나 국민의 행복이 우선돼야 한다.

개헌 공방에 국정이 매몰돼선 안 된다. 한 발씩 물러나 차분히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개헌 시안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그렇지 못하면 개헌 발의를 접는 순리의 정치를 기대한다.

이주현 대학부장
niitake@dongguk.ed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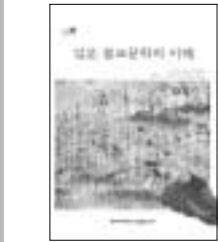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 | | | |
|----------|-----|-----------|------------------------------|
| 발행인 | 오영교 | 인터넷 동대신문 | http://www.dgupress.com |
| 편집인 겸 주간 | 윤재웅 | 인터넷 동국대학교 | http://www.dongguk.edu |
| 편집장 | 강지혜 | 구독문의: | (02)2260-3491 · 2, 동대신문 홈페이지 |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 · 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동국대 출판부 발간도서안내

1. **일본 불교문학의 이해**
오쿠보 료준 외 지음
김환기, 요시모토 하지메 옮김
2006 / 신국판/260면 / 12,000원
ISBN 89-7801-181-0 93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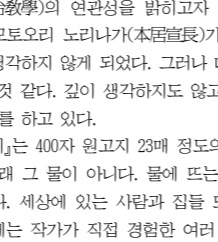
이 책은 일본 불교문학 개론서 『일본 불교문학의 이해』(김환기·요시모토 하지메 옮김, 동국대학교출판부)를 펴냈다. 이는 『佛敎文學を讀む』(大久保貞順 編, 講談社)를 번역한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 불교문학 연구서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소개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불교와 관련된 일본 고전 문학 특히 설화들이 번역되어 소개된 바는 많았지만, 연구서는 아니었다. 그 이유는 불교문학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또한 일본 불교문학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일본 불교문학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지침서라 하겠다. 이 책의 특징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일본 불교문학의 최고봉이라 할 만한 『헤이제 이야기』(平家物語)·『겐지 이야기』(源氏物語)·『방장기』(方丈記)·『근본이야기 모음』(今昔物語集) 등을 다루었다. 둘째, 불교문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여 일본 고전문학에서 현대문학에 이르기까지 불교문학을 넓고 체계적으로 소개하였다. 셋째, 다이쇼대학(大正大學) 창립 60주년 기념으로 출간한 형식적이다. 넷째, 한영서 불교문학 연구에 매진한 다이쇼대학 교수들의 연구 집성이다. 『헤이제 이야기』는 헤이제(平家: 다이라 집안)가 10세기 말에서 11세기에 걸친 싸움에 이겨 열화를 누리다가 12세기 말에 겐제이 전투(源平合戦) 미나모토 씨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다이라 씨를 중심으로 한 세력 사이의 싸움에 의해 몰락해 가는 과정을 묘사한 것이다. 『기원정사』(源朝正統)의 종소리는 재형무상(齋形無常)의 울림이요, 사라성수(娑羅雙樹)의 꽃 색깔은 성자필사(盛者必衰)의 이치를 나타낸다. 권세를 부리는 사람도 오래 가지 못하고, 한낱 불발의 꿈과 같다. 율명한 자도 결국에는 망하고, 한낱 바람 앞의 먼지와 같다'는 도입 부분은 널리 알려져 있다. 줄거리와 도입 부분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재형무상'이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휘어잡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쇠퇴하게 되어 있다. 진정한 이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등장하는데, 그 어떤 사람의 죽어도 연속하고 비정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또한 아버자를 향한 성실한 신앙의 실천으로서 극락정토를 왕성한 수 있다는 작가의 사상도 엿보인다.

『겐지 이야기』는 그 분량·내용·성과 등 어느 면으로 보나 일본문학 최고의 장편소설로 일컬어진다. 이 이야기가 성립된 지 벌써 천년 이상이나 지났는데 지금도 빛을 잃지 않고 새로운 연애가 벌어지고 영화나 만화 등으로 재탄생되는 것을 보면 일본문화에 끼치는 영향력을 알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20세기에 들어서는 영어나 불어로 번역·소개됨으로써 미국이나 유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천황의 아들이면서 일반 신민이 된 주인공 히카루 겐지(光源氏)가 수많은 여성들과 연애를 하다가 만년에는 파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그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가 이어진다. 옛날에는 『겐지 이야기』와 『법화경』(法華經)·천태교학(天台敎學)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하는 노가 많았는데 예도 시대(江戶時代)의 국학자 모토오리 노리나가(本居宣長)가 그 설을 강력하게 부인한 후에는 아무도 그 문제를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다시 둘보다보면 그것들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겐지 생략하지 않고 완전히 부각하지 말고 제대로 보자는 형태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방장기』는 400자 원고지 23매 정도의 짙막한 수필이다. 『호른』은 강물은 끊이지 않고 또 원래 그 틀이 아니다. 물에 뜨는 거품은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며 오래 머무는 일이 없다. 세상에 있는 사람과 짐을 또한 이와 같다'라는 도입부가 역시 유명하다. 이 작품에는 작가가 직접 경험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묘사되어 있다. 예를 들면, 12세기 당시 수도였던 교토(京都)에서 일어난 화재·회오리바람·대기근·대지진 등에 대해 생생한 기술이 이어진다.

작가는 출가한 스님으로서 방정(9학) 정도의 암자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세속적인 일에 전혀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여러 가지 기록을 보면 그가 문예나 음악 등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고 상당히 열매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이 마음이 약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할 것이다. 『헤이제이야기 모음』은 12세기 초엽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설화집이다. 인도·중국·일본의 설화들이 1000개 넘지 수록되어 있다. 그 중심 내용은 불교설화이다. 각 설화는 '지금은 옛날(今昔)'이라는 말로 시작된다. 그 중에서 특히 '일각산인(一角仙)의 전승'과 '달의 뜨개질'을 예로 들어 불교설화가 어떻게 변형되었는가를 추적하고 있다. 또한 이 설화들이 오래 되었어도 전혀 빛바래지 않는 현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몇 가지 설화를 통해 확인한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다. 반면 작업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 집필자 중의 한 분인 이시카미 겐노 선생님이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계실 때 시작하고 5년의 세월이 흘렀다. 또한 어려운 일본 옛말 문장과 불교 용어, 난해한 한자어, 심오한 해설 등을 이해하고 읽기 쉽게 번역을 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다. 일본문학이나 일본불교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었지만, 그래도 읽힐 만한 문장이 되었을 것이다. 일본문학과 일본불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문학과 불교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한 번 읽어 보실 것을 진심으로 추천하고 싶다.(연락처 02-2260-3483-4)

2. **동국대학교 생태환경연구센터 1 천성산 문제와 환경영향평가제도**
에코포럼 편



불교와 생태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학제적 접근을 통해 생태와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담론 및 연구교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2004년 10월에 창립된 '에코포럼'은 매학기 특정주제를 잡아 12회의 정례포럼을 개최해왔고 시사성 있는 현안에 대해 2차례의 정담포럼도 운영해왔다. 2005년 11월에 설립된 동국대학교 부설 생태환경연구센터는 에코포럼의 행정지원기관의 역할을 맡게 되어 앞으로 진행될 에코포럼에서 발표된 토론된 내용을 묶어서 생태학 총서로 발간할 계획이며, 이번에 발간되는 단행본은 2004년 12월과 2005년 6월에 개최된 제 1, 2회 정담포럼에서 발표되고 논 의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현실산이 제기한 문제와 해법'이란 주제의 내용을 엮어 보았 습니다. 본 서는 크게 두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1회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들로 구성된 1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실제적인 문제와 해결방안들이 거의 제시되었고,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입장들 즉 환경영향평가 직접 관리하는 주체인 한국환경정책·연구원과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환경단체, 환경영향평가 연구를 학자와 전문가,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업체 등의 다양한 입장들을 담았습니다. 2부에서는 제2회 심포지엄에서 다루었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천성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환경정책 및 법제도의 문제와 환경 갈등의 관점에서 사회의 의사소통구조문제, 환경영향평가의 기술적, 제도적 문제까지를 망라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환경정책, 환경경제, 환경생태학, 사회철학, 불교사상, 수질관리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환경관련업무를 하는 국회의원의 천성산 이슈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학제적 접근을 통해 종합적인 논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천성산 문제를 비롯하여, 새만금 간척사업, 경인운하 등 환경과 관련된 많은 사회갈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도 검토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국토개발 사업에 편파성을 주어 왔다는 비판까지 받아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제도와 대표적 갈등 사례인 천성산 문제는 내용 면에 있어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 이 두 주제를 연결시키는 공식적인 시도가 없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에 발간된 단행본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락처 (02)2260-3483-4)

3.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불교생태학총서 4 현대사회비판과 불교생태학**
동국대학교 BK21 불교문화사상교육연구단 편
2006/신국판/617/30,000원
ISBN 89-7801-178-0



오늘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환경 위기는 단지 자연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물리적인 의미에서만 아니라, 인간의 가치관과 정신이 근본적으로 붕괴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지구 위기론이라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정신적 위기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 윤리의 입장에서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자연과 환경의 문제들을 불교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이 책은 불교와 생태학이 서로 얼마나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논의의 중심으로 한 것의 결함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하였으며, 더 나아가 생태학이 불교의 가치관을 대폭 수용하여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를 진단해 보고 있다. 여기서 불교학과 생태학은 별개의 학문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영역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취급하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생태주의에 관한 전반적 소개와 철학적 기초를 살펴본 뒤, 환경주의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불교사상에 입각한 여러 갈래의 불교생태사상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사물들은 과거를 갖는 것처럼 또한 미래를 갖고, 더불어 미래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 불교생태학의 커다란 패러다임이다. 즉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로 건 강한 자연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미래 세대와 함께 하는 연대를 불교생태학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생태학은 총체에 대한 관점을 요구한다. 총체는 부분들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고 모든 것과의 유기적 상호 의존성에서 나온다. 말하자면 불교생태학은 단지 자연만을 보전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와 자연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문화와 사회적 의미를 포함한다. 이처럼 불교생태학적 자연관의 기본논제는 모든 것이 모든 점에서 다른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나고 싶은 동국인 -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 정우식(철학 93졸) 동문

“나와 자연은 둘이 아닙니다”

불교계의 다양한 단체와 사회활동에서 정우식 동문의 이름을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는 대한불교청년회 조직국장, 대한불교계종 서울광역시신도회 사무처장, 조계사 청년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조계사를 찾은 여러 불자들이 반갑게 합장을 하는 모습에서 그의 사람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이 묻어난다. '만물이 모두 연관되어 있다'는 연기론을 거듭 강조하는 그의 말을 통해 사소하게 여기기 쉬운 인연과 관계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되돌아 볼 수 있었다. 정 동문을 만나 불교에 입문하기까지의 과정과 오늘날 불교의 의미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불교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 5살 때 송광사 불교 포교 당에 할머니를 따라서 갔던 기억이 최초의 절과의 인연이다.

불교와 철학을 함께 배우고 싶어 우리학교를 택했는데, 재학시절에는 학원자주화투쟁을 하며 과거에 비해 침체된 우리학교의 문제를 고민했다. 학원자주화투쟁운동은 곧 불교자주화투쟁으로 이에 대해 고민하면서 알게 모르게 불교에 대한 공부가 되었다. 더불어 총학생회장장을 하며 학내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것도 모두 불교에 입문하는 과정이었다. 실질적으로 이론이 신앙과 결부되어 확실히 입문한 것은 96년 대한불교청년회 조직부장으로 일하면서부터이다.

- 불교환경연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면.

= 2001년 9월 1일 창립되어 환경에 관한 여러 문제를 불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불교적인 방법으로 풀어 가기 위한 불교계 환경 단체이다. 초반에는 '새만금 갯벌 살리기 3보 1배', '천성산 살리기 운동', '북한산 국립공원 관동도로 저지운동' 등 환경보전을 위해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굵직한 문제들이 많았고 그 뒤에는 '불교생태지도자 교육', '어린이생태지도자 교육', '아토피 제로 산사학교' 등을 다뤘다. 최근에는 '빈 그릇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빈 그릇 운동은 웰빙 운동이자 환경정제 운동, 나눔 운동이다.

- 환경문제의 본질과 해결해야 하는 방안은.

= 환경문제의 본질은 인간들이 탐욕 때문에 자연이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다. 지금의 먹을거리와 입을거리는 자연으로부터 온전히 오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생산과 소비를 하고 다시 자연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순환구조가 되어야 한다. 곧 자연 순환의 구조를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환경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또 환경과 내가 둘이 아니라 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 현대인에게 불교의 의미.

= 산업화되면서 과거에 비해 배고프지 않고 싼것 먹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하지만 예전보다 생활이 풍요로워진데 비해 행복지수는 낮아졌다.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물질은 풍요로우나 정신은 빈곤한 것이 현대인의 문제이다. 그런데 불교는 물질에 행복을 두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서 행복을 찾는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한다. 곧 불교는 내면의 수행을 통해 행복으로 가기 위한 다리이자 가르침이 되어준다.

- 불교의 대중화와 불자들의 단합을 위해서는.

= 무엇보다도 자신이 참 불자가 되어야 한다. 나와 자연이 둘이 아니고 나와 사회가 둘이 아니며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한 생명처럼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더불어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안으로는 자신의 욕심, 성냄, 어리석음을 다스리고 밖으로는 사회를 맑고 향기롭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 사람이 자기 나름의 수행법을 가지고 공동체를 형성해서 최소 1가지 이상의 사회적 실천행을 하는 '1수 1인 1행'을 통해 참 불자가 될 수 있다.

-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제안한다면.

= '불자 1인 1년 1가지 환경실천운동'인 '환경실천 111운동'을 전개했으면 한다. 이는 자신이 환경에 관해 1가지를 결심한 뒤 1년 동안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빈 그릇 운동, 쓰레기 줍기,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칭찬하기 등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사회적인 것으로 광의로 보면 나를 위해 좋은 마음을 내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은미 기자
eunmi@dongguk.edu



사학과 학회 '탐상연구회' 인터뷰

“함께 하는 문화유산 답사기”

덧붙였다. 그는 본래 역사를 배우고 싶어 사학과에 진학했고 불교 미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학회 활동을 하며 전과 달리 문화재를 보는 눈을 가지게 돼 그 매력에 푹 빠져 있다고.

매주 월요일 모여서 연구를 진행하는 탐상연구회는 기초분과에서 기본적인 지식을 쌓은 뒤 연구분과에서는 관심 있는 분야를 선택해 심층적인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학기 중에 차곡차곡 쌓인 지식은 매년 방학 중 여름·겨울 답사에서 빛을 발하는데, 이 답사는 가히 '탐상연구회의 꽃'이라 칭할만 하다. 그들의 답사는 직접 지도를 보고 길을 찾으며 히치하이킹으로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여느 답사와는 다른 점이라고. 이에 류상우 교문은 "다들 히치하이킹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열심히 부탁드리면 대부분 태워주세

요"라고 말하며 웃는다.

그들이 말하는 답사의 백미는 단순히 히치하이킹을 경험하는 것보다 직접 눈 앞에서 문화재를 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외국의 문화재들이 대부분 박물관 유리창 뒤에 진열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 문화재들은 주로 야외에 위치하고 있어 보다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주 남산 같은 경우 '불국토'라고 불릴 정도로 산 자체가 문화재로 뒤덮여 있다고 한다. "만약 그 문화재들이 박물관에 가지런히 놓여 있다면 만드인의 의도가 퇴색되지 않을까요?"라고 묻는 그들. 그들의 얼굴에는 불교 문화재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겨있었다.

학과차원의 답사는 대부분 특별한 사전지식 없이도 이해하기 쉬운 유적지로 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은 답사를 '숨은 문화재 찾기'라

고 부를 정도로 깊숙이 숨어있는 우리 문화재를 찾아 대화를 나누고 문화재의 소중함을 실감하고 돌아온다. 묻혀있던 가치를 연구하고 찾아내는 그들에게서 옛것이 주는 가치를 쉽게 잊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것은 어떨까.

문서영 기자
syoo@dongguk.edu



인물동정

유국현 교수팀 암진단위험 기술개발



우리학교 화학과 유국현 교수팀(양승대, 김상욱, 박정훈)이 원자력의학원 가속기개발실 채종서 박사팀과 공동연구로 암 조기진단 방사성 동위원소 동시생산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올해 'NUCLEAR MEDICINE AND BIOLOGY'에 게시되었으며 현재 특허 출원 중에 있다. 또한 매년 Agendatnet에서 선정하는 '한국을 빛낸 과학적 발견'에 선정되었다. 암 진단에 사용되는 불소와 탄소 방사성동위원소를 동시에 생산해 시간 단축, 원가 절감 뿐만 아니라 해외 기술 수입에 의존했던 것을 벗어나 3천만 달러 이상의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영화비평가연맹 회장 선임된 정재형 교수



지난달 28일 국제영화비평가연맹(FIRESCI) 한국지부에 우리학교 영상대학원 영화영상학과 정재형 교수가 회장으로 선출됐다. 국제영화비평가연맹은 전 세계 영화평론가 및 영화저널리스트들이 모여 창립한 단체로 한국지부는 1994년 이영일 평론가를 1대 회장으로 설립되었다. 이번 선출에 대해 정재형 교수는 "FIRESCI 코리아 3집이 올해 나올 것인데 이를 국제영화제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한국영화를 알리는 활동을 활발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응오 동문 한국일보신춘문에 당선



지난해 12월 31일 '2007 한국일보 신춘문예' 소설부문에 우리학교 유응오(문예창작전공 수료) 씨의 '요요'가 선정됐다. 이순원, 이승우, 성석제 소설가와 서영채 문학평론가로 이루어진 심사위원단은 "신인다운 패기와 서사의 에너지가 높게 솟았다"고 심사평을 내렸다. 이번 수상에 대해 유응오 씨는 "구심력과 원심력을 이용한 요요와 사람 사이의 인력이 서로 유사하다고 생각했다"며 "불교로 이어진 인연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지경화 학생 대산대학문학상 수상



지난해 12월 8일 발표된 제 5회 대산대학문학상 희곡부문에 우리학교 지경화(문창3) 학생이 당선되었다. 당선작 '누가 동생의 머리를 깎았나'에 대해 심산, 김희재 시나리오 작가는 "행간에 누워된 과거와 세상을 바라보는 비극적 시선이 잘 어우러져 깊은 감동을 자연스럽게 전해주었다"라고 심사평을 했다. 이번 당선으로 지경화 학생은 학교 측의 공로 장학도 받게 되었다. 이에 지경화 학생은 "함께 글 쓰는 문우들과 이렇게 작은 글로 큰 사람 만들어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